

제34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기간: 2007. 10.16 - 11.3

장소: 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보고서를 내며

프랑스 파리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는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결기구이자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20일 가까이 계속되는 총회는 향후 2년 내지 6년동안 유네스코가 해야 할 일들과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총회는 190여 개 회원국들이 ‘평화와 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자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을 실천·모색하는 치열한 외교의 장이며 세계 소프트 파워의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올해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19일 동안 개최된 제34차 총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몬테네그로가 새로 가입해 유네스코 회원국 수가 유엔기구 중 최다인 193개국에 이르렀으며, 스웨덴 국왕, 불가리아 대통령 등 국가 수반 10명, 270여명의 각국 장·차관 등 약 4,000명이 참가해 유네스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총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수석대표로 30명으로 구성된 총회 대표단을 파견해 본회의와 7개 분과위원회 회의는 물론 각종 공식·비공식회의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2008-2009 정규예산을 6억 3,100만불로 2006-2007 회기보다 3.4% 증가된 금액으로 의결했습니다. 사업예산 배분을 규모 순으로 보면, 교육 사업에 전체 정규예산의 17.2%에 해당하는 1억800만불, 자연과학 사업에 5,600만불, 문화 사업에 5,100만불,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3,200만불, 인문사회과학 사업에 2,900만불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2008-2013 중기전략을 채택하여 최우선 관심과제로 아프리카 및 양성평등을 설정하는 한편, ‘모든 이를 위한 양질교육 및 평생교육 달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지식 및 정책 결집’,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도전에 대응’,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증진’, ‘정보 및 지식을 통한 포용적 지식사회 건설’ 등을 사업부문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단은 1987-2003년간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한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다시 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교육, 과학, 문화 분야 다자규범의 형성 및 이행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정부간 위원회 이사국 선거에서도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인간과 생물권사업(MAB) 국제조정위원회와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GBC)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어, 세계유산위원회(WBC), 국제교육국(IBE) 집행이사회, 국제해양학 정부간위원회

(IOC), 불법소유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등과 함께 대 유네스코 외교의 중요한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신일 부총리는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문화 건설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며 유네스코를 통한 남북협력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한국의 해외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25%까지 증액할 계획임을 밝히고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한 아프리카 최빈국과의 교육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도 조속히 비준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과 직원들도 총회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한 꼼꼼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분과위의 의제를 분석하고 발언문의 기초를 준비하며 총회의 각 분과 전반을 관리하는 한위의 역할은 최근 몇 차례의 총회를 거쳐 더욱 공고해졌으며, 점차 효과적이며 충실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제34차 총회에서 다룬 핵심의제들과 각 회원국들의 활동을 진단하여 한위 차원의 국내외 사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처방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34차 총회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제35차 총회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며, 한위가 유네스코를 담당하는 국가위원회로서 어떠한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가르키는 방향타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으나,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및 기타 유네스코 활동 관계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구성과 현지에서의 활동을 위해 애쓰신 교육인적자원부 및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유네스코와 저희 한국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이 삼 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목 차

I. 회의 개요

가. 기 간	1
나. 장 소	1
다. 참가대상	1
라. 의 제	1
마. 회의구성 및 내용	4
바. 본회의 및 분과회의 의제	7
사. 전체 일정표	12

II. 본회의

가. 총회개회 및 의장단 선출	13
나. 주요 정상 발언요지	14
다. 한국 수석대표 발언	15

III. 분과회의

가.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과위원회 (PRX)	16
나. 교육분과위원회 (ED)	26
다. 자연과학분과위원회 (SC)	30
라. 인문사회분과위원회 (SHS)	40
마. 문화분과위원회 (CLT)	43
바. 커뮤니케이션분과위원회 (CI)	47
사. 행정분과위원회 (ADM)	53

IV. 주요 결의 내용

가. 중기전략 및 예산 채택	62
나. 집행이사국 및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선출	62

V. 특별회의

가.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70
나. 교육장관 원탁회의	71
다. 과학장관 원탁회의	72
라.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회의	72
마.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비공식 지역회의 (아태지역)	73
바. 학제간 공동회의	74

사. 시민사회 포럼	75
VI. 한국대표단 활동	
가. 한국대표단 명단	77
나. 한국대표단 주요활동	78
VII. 한국대표단 발언문	
가.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80
나.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분과 발언문	83
다. 교육분과 발언문	84
라. 자연과학분과 발언문	87
마. 인문사회분과 발언문	90
바. 문화분과 발언문	94
사. 커뮤니케이션분과 발언문	97
아. 행정분과 발언문	98
VIII. 관찰·평가 및 건의사항	
가. 분과별 관찰·평가	100
나. 건의사항	105
다. 참관기	105
IX. 참고자료	
가. 북한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109
나. 숫자로 본 제34차 총회	112
X. 한국대표단 사진자료	113

I. 회의 개요

가. 기간: 2007년 10월 16(화) - 11월 3일(토), 19일간

나. 장소: 유네스코본부 (프랑스 파리)

다. 참가대상

- 1) 193개 정회원국 (몬테네그로 공화국 및 싱가포르 포함)
- 2) 6개 준회원국 (아루바, 영령 버진군도, 케이만 군도, 마카오, 네덜란드 안틸레스, 토켈로)
- 3)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 대표
- 4)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 옵서버 등

라. 의제: 13개 영역 72개 항목

- 1) 총회의 구성 및 진행방법에 관한 영역
 - 1.1. 개회
 -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의 총회 보고
 - 1.3. 유네스코헌장 4조C항 Para8(c)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회원국들과의 의견 교환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4. 의제 채택
 - 1.5. 의장단 선출
 - 1.6. 금차 총회 업무구성
 - 1.7. NGO 옵저버의 총회 참가
- 2) 유네스코 활동 및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영역
 - 2.1. 2004-2005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2.2. 2006-2007 활동에 관한 집행이사회 보고
- 3)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안 및 2010-2011 사업·예산안에 관한 영역
 - 3.1.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안 (34C/4)심의 및 채택
 - 3.2. 2010-2011 사업 및 예산안 준비
 - 3.3. 주요사업 II 및 III 에 대한 전반적 검토
- 4)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에 관한 영역
 - 4.1. 2008-2009 예산안 준비방법
 -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4.3. 2008-2009 세출결의안 채택
- 5) 일반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영역

- 5.1. 2008-2009 유네스코가 연계될 수 있는 기념일
- 5.2. 예루살렘과 33C/결의안 50의 이행
- 5.3. 아랍 점령지역내 교육 문화기구에 관한 33C/결의안 70의 이행
- 5.4.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5.5. 여성, 스포츠 및 체육교육에 대한 유네스코 감독기구 설립
- 5.6.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카테고리 II 기관 설립
- 5.7. 유네스코 이름, 약어, 로고 및 인터넷 도메인명 사용에 관한 지침
- 5.8. 중앙아시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및 이를 위한 국제 공여자 포럼 조직
- 5.9. 도시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 5.10. UNESCO-IHE 물교육 관련 유네스코와 네델란드 정부 간 업무협약 갱신: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안
- 5.1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교사훈련(TTISSA)의 효과 증대: 미국 제안
- 5.12.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인권교육연구소 설립: 아르헨티나 제안
- 5.13. 국제 문화 만남의 해 선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공동 제안
- 5.14.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증진 강화: 일본 제안
- 5.15. 라틴아메리카 및 캐러비안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정부간 지역위원회의 위상 조정: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안
- 14.1. 코트디부아르를 위한 유네스코 사업분야에서의 전후 종합 지원 특별안 준비: 코트디부아르 제안
- 14.2. 유대인 대학살 상기 :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공동 제안 (한국 공동후원국의 일원으로 지지)
- 14.3. 우크라이나대기근 희생자 추모: 우크라이나 (한국 지지국의 일원으로 지지)
- 6) 유네스코 조직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영역
 - 6.1. 유네스코 3대 기구 간 관계에 관한 33C/결의안 92의 이행
 - 6.2. 지역사업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의
- 7) 헌장 및 법률에 관한 영역
 - 7.1. 행정재판소: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 사법권 기간의 연장
- 8) 협약, 권고 및 기타 국제 규범에 관한 영역
 - * 기존의 국제규범 이행
 - 8.2. 사이버 공간의 사용언어 다양화 및 보편적 접근 증진에 관한 권고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
 - 8.3. 유네스코 국제규범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 8.4. 문화재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 보호 증진 및 개도국 박물관 개발
- 9) 회원국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
 - 9.1.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요청
- 10)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영역

- 10.1. 유네스코 사업에 기여한 NGO에 대한 집행이사회 6개년 보고
- 11) 행정 및 재정업무에 관한 영역
 - 11.1. 조직개혁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 재정 관련 사항
 - 11.2. 비정규예산의 효과적 활용계획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1.3. 2005년 12월 31로 끝나는 회계기간에 대한 유네스코 재정보고
 - 11.4. 2007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기간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보고
 - 11.5.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 11.6. 회원국 분담금 모금
 - 11.7. 운영기금: 기금 현황 및 관리
 - 11.8.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이행에 대한 권고
 - * 인사 관련 사항
 - 11.9. 인사규정 및 규칙
 - 11.10. 직원 보수, 수당, 혜택
 - 11.11. 직원 의 지리적 배분 및 성비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1.12. 2008-2009 유네스코 직원연금 위원회 회원국 대표 임명 및 유엔 공동 직원 연금기금
 - 11.13. 의료혜택기금 및 동 기금의 2008-2009 관리위원회 회원국 대표 임명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 본부 관련 사항
 - 11.14. 유네스코 본부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2) 선거에 관한 영역
 - 12.1.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거
 - 12.2. 제35차 총회 법률위원회 선거
 - 12.3. 본부위원회 위원 선거
 - 12.4. 교육차별금지협약 분쟁조정위원회 선거
 - 12.5.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 이사회 선거
 - 12.6.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업 정부간 위원회 (IFAP) 선거
 - 12.7. 국제 인간과 생물권 계획 (MAB) 조정위원회 선거
 - 12.8. 국제 수문학 사업 (IHP) 정부간위원회 선거
 - 12.9. 불법소유 문화재 반환촉진위원회 (ICPRCP) 선거
 - 12.10. 누비아박물관, 이집트국립문명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제캠페인집행위원회 선거
 - 12.11. 국제 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위원회 (IPDC) 선거
 - 12.12. 사회변동 관리 사업 (MOST) 정부간위원회 선거
 - 12.13. 정부간 생명윤리 위원회 (IGBC) 선거
 - 12.14. 체육교육 및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선거
 - 12.15.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 이사회 선거

- 13) 35차 총회에 관한 영역
13.1. 제35차 총회 장소

마. 회의구성 및 내용

- 1) 회의시간: 10:00-13:00(오전) 및 15:00-18:00(오후), 필요시 연장 가능
(단, 총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장단 회의는 09:00-10:00)
- 2) 발언제한시간: 본회의: 8분(일반정책토의) / 분과회의: 의장 재량
- 3) 좌석배치: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불어 알파벳순
- 4) 주요 문서 구분
 - a. 34C/1 (유네스코 총회 의제)
Prov. (유네스코 총회 잠정의제)
Rev. (개정된 유네스코 총회의제)
Add. (추가)
Corr. (수정)
 - b. 34C/2 총회 진행절차
 - c. 34C/3 이전 회기 사업(2006-2007년도)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d. 34C/4 유네스코 중기전략 (2008-2013년도)
 - e. 34C/5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2008-2009년도)
 - f. 34C/6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2008-2009년도)관련 집행이사회의 권고
 - g. 34C/INF. 총회 및 의제 관련 정보 (별도의 결의를 요하지 않음)
 - h. 34C/REP. 유네스코 정부간 기구가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 또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국제회의 혹은 지역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을 포함.
 - i. 34C/RES. 유네스코 총회 결의안
 - j. 34C/NOM.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 실시되는 선거와 관련된 정보 제공.
 - k. 34C/COM 유네스코 총회 분과위원회 문서
 - l. 34C/LEG 유네스코 총회 법률위원회 보고서
 - m. 34C/DR. 회원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
 - n. 34C/PLEN.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 결의안 초안
- 5) 본회의
 - a. 1차 본회의 (10월16일 오전) / 개회, 신임장위원회·지명위원회 구성, 의제 채택
 - b. 2차 본회의 (10월16일 오후)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분과위원회·상임위원회 구성, 팔레스타인 유네스코 가입 요청, 국제 NGO 옵저버 총회 참가, 신임장위원회 보고

- c. 3차 본회의 (10월17일 오전 - 10월20일 오전) / 일반정책토론
 (10월22일 오전 - 10월24일 오전) / 일반정책토론
 (10월24일 오후) / 사무총장 답변
 (11월1일 오전 - 11월2일 오후) / 제34차 총회 보고서 채택
 (11월3일) 폐회
- 6) 7개 분과위원회 및 학제간 공동회의

분과위원회	회의기간	비고
ADM Commission 행정	10월17일 오전 - 10월20일 오후	보고서 채택 10월23일 오전 (Room XI)
PRX Commission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10월17일 오전 - 10월20일 오후	보고서 채택 10월23일 오후 (Room XII)
ED Commission 교육	10월22일 오전 - 10월24일 오후	보고서 채택 10월27일 오전 (Room II)
SC Commission 자연과학	10월23일 오후 - 10월25일 오후	보고서 채택 10월30일 오후 (Room XII)
SHS Commission 인문사회과학	10월26일 오전 - 10월30일 오후	보고서 채택 10월31일 오후 (Room XII)
CLT Commission 문화	10월26일 오전 - 10월29일 오후	보고서 채택 11월1일 오후 (Room II)
CI Commission 커뮤니케이션	10월26일 오전 - 10월29일 오후	보고서 채택 11월1일 오전 (Room XI)
Interdisciplinary Meeting 학제간 공동 회의	10월17일 오후 - 10월18일 오후	의제2.2, 의제3.1, 의제3.2, 의제 4.2 논의



7) 총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기간	비고
Credentials Committee 신임장위원회	10월16일 오전 - 10월17일 오후	1차 본회의에서 9개 회원국이 위원으로 선출되어 위원회 구성 (Room VI)
Nominations Committee 지명위원회	10월16일 오전, 10월18일 오전, 10월20일 오전, 10월22일 오전, 10월23일 오전, 10월24일-25일 오전 및 오후 (집행위 및 주요 선거)	모든 수석대표들로 구성(한국포함) (Room IV)
Legal Committee 법률위원회	10월17일 오전 - 10월18일 오후	33차 총회에서 선출된 24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 포함) (Room VIII)

8) 본부청사위원회 (Headquarters Committee): 본부청사 유지 및 보수관련 문제

9) 특별회의

- a. 청소년 포럼
 - 기간 : 10월12일 - 10월13일
 - 장소 : Room II
 - 주제 :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b.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 회의
 - 일시 : 10월 18일 08:00 - 10:00
 - 장소 : Rom IX
- c. 유네스코 국제교육기획연구소(IIEP) 안내 오찬회의
 - 일시 : 10월18일 13:00 - 14:30
 - 장소 : 유네스코 국제교육기획원 (IIEP)
- d. 교육장관 원탁회의
 - 기간 : 10월19일 오전 - 10월20일 오후
 - 장소 : Room X
 - 주제 :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 e. 유네스코-로레알 파트너십 오찬회의
 - 일시 : 10월22일 13:00 - 15:00
 - 장소 : Room IX
- f.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지역회의 (아태지역)
 - 일시 : 10월23일 10:00 - 13:00
 - 장소 : Room IX
- g. 인종차별 반대 도시 연합 조찬 회의
 - 일시 : 10월24일 08:30 - 10:00

- 장소 : Room IX
- h. 제16차 세계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 일시 : 10월24일 - 25일 10:00 - 18:00
 - 장소 : Room XI
- i. 시민사회 포럼
 - 일시 : 10월25일 10:00 - 18:00
 - 장소 : Room II
 - 참가대상 : 상주대표부, 국가위원회, 지방정부, NGOs, 국제 국회의원 모임 대표, 사기업 대표 등
- j. 과학장관 원탁회의
 - 기간 : 10월26일 오전 - 10월27일 오후
 - 장소 : Room X
 - 주제 :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ole of UNESCO
- k. 모든이들 위한 정보사업 (IFAP) 국가위원회 비공식회의
 - 기간 : 10월27일 13:30 - 15:00
 - 장소 : Room XI
- l. MOST 특별회의
 - 일시 : 10월31일 09:30 - 12:00
 - 장소 : Room XIII (Miollis 빌딩)
- m. 2008 지구행성의 해 관련 주제 전시회

10) 주요선거

- a. 집행위원회 선거: 10월24일, Room V
- b. 기타 정부간 이사회 위원국 선거: 10월25일

바. 본회의 및 분과회의 의제

1) 본회의 (Plenary)

- 1.1. 개회
-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의 총회 보고
- 1.4. 의제 채택
- 1.5. 의장단 선출
- 1.6. 금차 총회 업무구성
- 1.7. NGO 옵저버의 총회 참가
- 2.1. 2004-2005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2.2. 2006-2007 활동에 관한 집행이사회 보고
- 3.1.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안 (34C/4)심의 및 채택

4.3. 2008-2009 세출결의안 채택

9.1.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요청

12.1.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거

13.1. 제35차 총회 장소

2)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과 (PRX Commission)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Part II.A. 유네스코 통계국

Part II.B. 참여사업

Part II.C. 사업관련 서비스

Part III.B. 대외관계 및 협력

5.1. 2008-2009 유네스코가 연계될 수 있는 기념일

5.7. 유네스코 이름, 약성어, 로고 및 인터넷 도메인명 사용에 관한 지침

6.1. 유네스코 3대 기구 간 관계에 관한 33C/결의안 92의 이행

6.2. 지역사업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의

10.1. 유네스코 사업에 기여한 NGO에 대한 집행이사회 6개년 보고

14.1. 코트디부아르를 위한 유네스코 사업분야에서의 전후 종합 지원 특별안
준비: 코트디부아르 제안

14.2. 유대인 대학살 상기 :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공동 제안

14.3. 우크라이나대기근 희생자 추모: 우크라이나

3) 교육 분과 (ED Commission)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Part II.A. 주요사업 I - 교육

5.3. 아랍 정령지역내 교육 문화기구에 관한 33C/결의안 70의 이행

5.4.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5.1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교사훈련(TTISSA)의 효과 증대: 미국 제안

5.12.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인권교육연구소 설립: 아르헨티나 제안

5.15. 라틴아메리카 및 캐러비안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정부간 지역위원회의
위상 조정: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안

* 한국 지지 DR

34C/5 (DR 번호: 01000) 제안국: 오스트리아 / 공동후원국:프랑스,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멕시코, 포르투갈, 대한민국, 스위스 / 지지국: 슬로베니아, 그리스, 요르단 (유네스코 양질의 교육 사업 증진 관련 ASPnet강화를 요청하는 결의안 초안)

4) 자연과학 분과 (SC Commission)

3.3. 주요사업 II 및 III 에 대한 전반적 검토

-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Part II.A. 주요사업 II - 자연과학
- 5.6.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카테고리 II 기관 설립
- 5.8. 중앙아시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및 이를 위한 국제 공여자 포럼 조직
- 5.10. UNESCO-IHE 물교육 관련 유네스코와 네델란드 정부 간 업무협약 갱신: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안

- 5) 인문사회과학 분과 (SHS Commission)
 - 3.3. 주요사업 II 및 III 에 대한 전반적 검토
 -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Part II.A. 주요사업 III - 인문사회과학
 - 5.5. 여성, 스포츠 및 체육교육에 대한 유네스코 감독기구 설립
 - 5.9. 도시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 6) 문화 분과 (CLT Commission)
 -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Part II.A. 주요사업 IV - 문화
 - 5.2. 예루살렘과 33C/결의안 50의 이행
 - 5.3. 아랍 점령지역내 교육 문화기구에 관한 33C/결의안 70의 이행
 - 5.13. 국제 문화 만남의 해 선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공동 제안
 - 8.1.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이전 문화재 반환원칙 에 관한 선언 초안
 - 8.4. 문화재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 보호 증진 및 개도국 박물관 개발

- 7)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 (CI Commission)
 -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Part II.A. 주요사업 V - 정보커뮤니케이션
 - 8.2. 사이버 공간의 사용언어 다양화 및 보편적 접근 증진에 관한 권고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

- 8) 학제 간 공동 회의 (Interdisciplinary Meeting)
 - 2.2. 2006-2007 활동에 관한 집행이사회 보고
 - 3.1.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안 (34C/4)심의 및 채택
 - 3.2. 2010-2011 사업 및 예산안 준비
 -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9) 행정 분과 (ADM Commission)

- 1.3. 유네스코헌장 4조C항 Para8(c)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회원국들과의 의견 교환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4.1. 2008-2009 예산안 준비방법
-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Part I. 일반정책 및 방향
 - Part II. 사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
 - Part III.A. 지역사무소관리 및 조정
 - Part III.C. 인력관리
 - Part III.D. 행정
 - Part IV.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
- 11.1. 조직개혁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1.2. 비정규예산의 효과적 활용계획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1.3. 2005년 12월 31로 끝나는 회계기간에 대한 유네스코 재정보고
- 11.4. 2007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기간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보고
- 11.5.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 11.6. 회원국 분담금 모금
- 11.7. 운영기금: 기금 현황 및 관리
- 11.8.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이행에 대한 권고
- 11.9. 인사규정 및 규칙
- 11.10. 직원 보수, 수당, 혜택
- 11.11. 직원 의 지리적 배분 및 성비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1.12. 2008-2009 유네스코 직원연금 위원회 회원국 대표 임명 및 유엔 공동 직원 연금기금
- 11.13. 의료혜택기금 및 동 기금의 2008-2009 관리위원회 회원국 대표 임명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11.14. 유네스코 본부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0) 지명위원회 (Nominations Committee)

- 1.5. 의장단 선출
- 12.1.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거
- 12.2. 제35차 총회 법률위원회 선거
- 12.3. 본부위원회 위원 선거
- 12.4. 교육차별금지협약 분쟁조정위원회 선거
- 12.5.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 이사회 선거
- 12.6.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업 정부간 위원회 (IFAP) 선거
- 12.7. 국제 인간과 생물권 계획 (MAB) 조정위원회 선거

- 12.8. 국제 수문학 사업 (IHP) 정부간위원회 선거
- 12.9. 불법소유 문화재 반환촉진위원회 (ICPRCP) 선거
- 12.10. 누비아박물관,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제캠페인 집행위원회 선거
- 12.11. 국제 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위원회 (IPDC) 선거
- 12.12. 사회적 전환 관리 사업 (MOST) 정부간위원회 선거
- 12.13. 정부간 생명윤리 위원회 (IGBC) 선거
- 12.14. 체육교육 및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선거
- 12.15.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 이사회 선거

11)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7.1. 행정재판소: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 사법권 기간의 연장
- 8.3. 유네스코 국제규범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사. 전체 일정표

DATE	PLENARY MEETING	COMMISSIONS								COMMITTEES					
		ADM	PRX	ED	SC	SHS	CLT	CI	LEG	CRE	NOM	BUR			
OCT Fri 12 Sat 13	Youth Forum														
Tues 16	1 Opening 2										1 CRE 2 CRE	1 NOM			
Wed 17	POLICY DEBATE	3 1 ADM	1 PRX							1 LEG	3 CRE		1 BUR		
		4 2 ADM	INTERDISCIPLINARY MEETING								2 LEG	4 CRE			
Thurs 18		5 3 ADM	2 PRX									3 LEG		2 NOM	
		6 4 ADM	3 PRX									4 LEG			
Fri 19	POLICY DEBATE	7 5 ADM	4 PRX	Round Table MINS ED									2 BUR		
		8 6 ADM	5 PRX												
Sat 20		9 7 ADM	6 PRX										3 NOM		
Sun 21															
Mon 22	GENERAL			1 ED								4 NOM			
		11 2 ED													
Tues 23		12 8 ADM Report			3 ED							5 NOM	3 BUR		
	13		7 PRX Report	4 ED	1 SC										
Wed 24	14			5 ED	2 SC							EXB elections			
	15 DG's reply			6 ED	3 SC										
Thurs 25		Civil Society			4 SC	Forum						Other elections			
					5 SC										
Fri 26					Round Table MINS SC	1 SHS	1 CLT	1 CI					4 BUR		
						2 SHS	2 CLT	2 CI							
Sat 27				7 ED Report		3 SHS	3 CLT	3 CI							
Sun 28															
Mon 29					SC/SHS		4 CLT	4 CI							
						4 SHS	5 CLT	5 CI							
Tues 30						5 SHS							5 BUR		
						6 SC Report									
Wed 31						6 SHS Report									
Thurs 1	REPORTS	16						6 CI Report							
		17						6 CLT Report							
Fri 2	REPORTS	18	JOINT MEETING												
		19													
Sat 3		20 Closure													

II. 본회의

가. 총회개회 및 의장단 선출

1) 의제 1.1. 제33차 유네스코 총회개막

총회절차규정 28조에 의거 전차 총회의 의장인 Mr. Musa Bin Jaafar Hassan (오만)의 개회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제33차 총회의장의 환영인사 및 집행이사회 의장인 Mr. Zhang Xincheng (중국), Mr. Koichiro Matsuura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환영인사가 각각 이어짐. 특히 Mr. Zhang 집행이사회 의장은 연설을 통해 오늘날,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세계화, 지식사회의 출현, 그리고 유엔의 개혁과정에서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도적 문화와 교육의 보급, 인류의 번영’이라는 유네스코의 사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함.

2) 의제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의 총회 보고

총회절차규정 32조에 의거 임시 총회 의장인 Mr. Musa Bin Jaafar Hassan는 신임장위원회 구성을 위해 다음 9개국을 추천하였고 총회는 이를 승인함: 바베이도스, 살바도르, 케냐, 쿠웨이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모아, 슬로바키아

3) 의제 6.1. 유네스코 3대 운영기구에 관한 보고

유네스코 3대 운영기구에 관한 의제가 PRX 분과에서 다뤄질 예정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총회 본회의에서 동 의제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보고함. 지난 33차 총회에서는 유네스코 3대 기구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련의 권고로 구성된 결의안(Resolution 33C/92)을 채택한 바 있으나, 권고 21번,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순환’ 문제는 아직까지도 회원국간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음을 알리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함.

4) 의제 1.5. 의장단 선출

제34차 총회 의장으로 오만의 Mr. Georges Anastasopoulos 그리스 대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각 지역그룹별 6개국씩 총 36개국이 임명됨. 한편, 총회 의장은 각 분과위원회 의장을 다음과 같이 선출함.

- a. 의 장: Mr Georges Anastasopoulos (그리스)
- b. 부의장: 아프가니스탄 등 36개국
- c. 교육분과: Mr Ricardo Henriques (브라질)
- d. 자연과학분과: Mr Eriabu Lugujo (우간다)
- e. 인문사회분과: Mr Julius OSZLÁNYI (슬로바키아)
- f. 문화분과: Mr Javad Zarif (이란)
- g. 커뮤니케이션분과: Mr. Frédéric Rieh(스위스)

- h. 행정분과: Mr. Olabiyi Babalola Joseph Yaï (베냉)
- i. 대외협력 및 사업지원분과: Ms Salwa Saniora Baasiri (레바논)
- j. 지명위원회 : Mr Abdussalam M. AL-JOUFI (예멘)
- k. 법률위원회 : Mr Kono Toshiyuki (일본)
- l. 신임장위원회 : Mrs Ina MARCIULIONYTE(리투아니아)

5) 의제 1.7. NGO 옵저버의 총회 참가

유네스코와 이미 관계를 유지해온 비정부기구와 기타 비정부기구 옵저버의 제 33차 총회 참여에 관해 총회는 집행이사회 권고대로 해당 비정부기구에 옵저버 자격을 부여함.

6) 의제 2.1. 2004-2005 사업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유네스코의 장점인 intersectoral approach와 이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을 강조함. 유네스코는 지난 2년간 사업 수행에 있어 이전보다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덧붙여 사무총장은 조직 내부에서 지리적 대표를 다양화시키려 노력하였음을 언급하고 유네스코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결과중심적 관리(result based management)는 국제기구 중 유일한 것이며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유네스코는 유엔 개혁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 예산 규모 미화 631만 달러에 대한 합의를 요청함.

나. 주요 정상 발언요지

금차 총회 기간 중에는 적도기니, 탄자니아, 마케도니아, 스웨덴, 파라과이, 카메룬, 그리스 등 10개국 정상이 유네스코를 방문함.

1) 스웨덴 (Mr. Carl XVI, 국왕)

기후변화와 이의 영향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지적하며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함. 특히 유네스코는 유엔이 정한 '2005-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개년'의 선도 기관으로서 지식 및 정보전파 등을 통해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을 적극 도와야 함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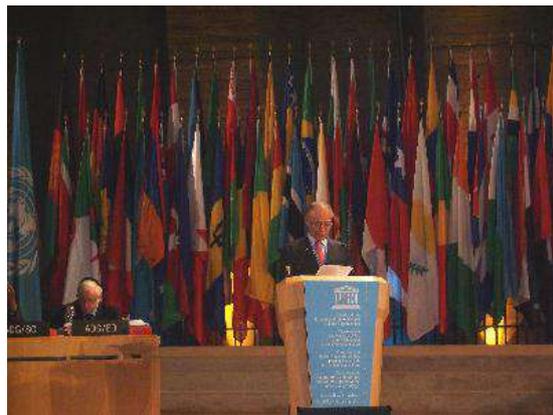
2) 탄자니아 (Mr. Jakaya Mrisho Kikwete, 대통령)
 유엔과 유네스코 개혁 조치에 대해 지지함. 교육이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탄자니아의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약속하면서, 교사 및 교육기자재 부족 해결 등을 현안으로 언급함. 동아프리카 노예무역과 아프리카 독립 역사 기록에 대한 유네스코 지원에 감사함. 800곳이 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아프리카 유산은 50곳 미만인 점을 지적하고, 향후 아프리카 유산 목록 확충을 강조함.



3) 마케도니아(Mr. Branko Crvenkovski, 대통령)
 세계 곳곳이 물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물 교육과 연구를 위한 유네스코 센터’ 설립을 제안함. 마케도니아는 올해 중 ‘동남유럽 문화유산 디지털화를 위한 지역 센터’를 개소할 예정임. 동남유럽의 역내 문명간 대화 촉진에 유네스코의 기여를 치하하고, 특히 베니스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강조함. 2007년 유엔 총회 의장국임을 언급함.

다. 한국 수석 대표 연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문화 건설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고, 남북협력이 유네스코를 통해 강화되기를 바램. 또한 한국이 수십년 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교육발전 경험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역점 사업인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EFA)” 사업을 적극 지원함을 강조함. 특히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개도국의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ICT 활용 전문가 연수를 지원하는 유네스코-한국 신탁기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EFA 목표 달성을 위해 긴요한 아프리카 교사교육 사업 등 유네스코 중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함.



III. 분과회의

가.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과위원회 (PRX)

1) 의장단 선출

- a. 의장 : Ms Salwa Saniora Baasiri (레바논)
- b. 부의장 : Mr Harald Wiesner (오스트리아)
Ms Ina Marciulionyte (리투아니아)
Ms Patricia Ashton (에콰도르)
Ms Susan Pascoe (호주)
- c. 보고관 Mr Mouhamed Konaté (세네갈)

2)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Part II.C. Chapter 1. 아프리카 지원활동의 조정 및 모니터링) 및 의제 14.1. '코트디부아르를 위한 유네스코 사업 분야에서의 전후 특별 지원사업 준비

상기 두 의제를 병합 심의함. 모든 회원국은 유네스코 사업에 있어 아프리카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코트디부아르가 제안한 의제 14.1를 지지함. 프랑스는 유네스코 아프리카 담당국과 다른 사업부문과의 업무협력 강화 필요성 및 유엔의 아프리카 관련 결의안과의 조화를 강조했고, 영국도 유네스코의 여러 사업부문들 중 불필요한 중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 독일과 스페인 등은 아프리카 지원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미국은 코트디부아르가 제안한 DR과 관련 DR에 예산문제도 명시되어야 함을 언급함.

- PRX 분과위는 34C/5 Corr. 및 34C/6 Add.의 수정안을 포함, 34C/5 2nd version Vol 1. para 10100을 총회가 승인할 것을 권고함.
- PRX 분과위는 코트디부아르 DR para 6(c)관련, 프랑스, 벨기에, 스리랑카, 미국 등이 제안한대로 원안에 '유엔 결의안과의 조화', 'DR 이행 관련 예산문제', '유네스코 조직 내부차원에서의 조정은 물론 UN country team 과의 조정 강조' 등을 추가하는 한편, 사무국의 제안대로 동 DR의 이행에 대한 보고를 180차 집행이사회에서 181차 집행이사회로 늦추기로 함.

3)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Part II.A. 유네스코 통계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폴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태국, 스리랑카, 멕시코, 피지 등은 UIS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증진 협약'을 포함 문화 분야에서도 양질의

통계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태국은 특히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바탕으로 문화 분야 통계 자료가 생산되어야 함을 강조함. 프랑스는 UIS가 EFA 및 MDG 모니터링을 우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UIS가 향후 기초교육분야 외에도 고등교육분야 통계자료도 활발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독일, 네델란드 등은 UIS가 EU통계국, OECD 등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스위스 나미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회원국의 역량강화 문제를 강조함. 스웨덴은 UIS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모니터링 및 이의 보고서 제작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한편, 미국은 UIS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UIS의 ‘문맹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Literacy Assessment and Monitoring Programme)에 대해 강력히 지지의사를 표명함. 미국은 회원국들의 새로운 사업 제안들과 관련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스웨덴이 제안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함.

발언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UIS가 EFA 및 MDG 모니터링을 통해 그간 이뤄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UIS 사업이 유네스코 조직 가시성 증진에 기여했음을 인정함. 회원국들은 UIS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UIS가 교육분야는 물론 문화, 과학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미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PRX 분과위는 34C/5 Corr. 및 34C/6 Add.의 수정안을 포함, 34C/5 2nd version Vol 1. para 06000을 총회가 승인할 것을 권고함.
- 이와 관련, 집행이사회 경비 30만불을 삭감하는 대신, 문화분야 통계 사업비를 증액하자는데 스웨덴의 제안(34C/DR.20)이 논의되었으나, 미국, 파키스탄, 산타루시아, 브라질, 멕시코, 영국 등이 반대하여 채택되지 않음.
- 프랑스는 국제교육분류기준(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고려, 동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함(34C/DR.25). 이에 대해 네델란드는 동 사안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이 문제를 금차 총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추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UIS가 제35차 총회에서 중간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프랑스도 이에 동의함.
- 34C/REP/19 (UIS 보고)는 별도의 논의 없이 채택됨.

4) 의제 14.2. 유대인 대학살 상기안

동 의제 제안국의 하나인 미국은 취지 설명과 함께 para 6의 “Request the Director-General to consult with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regarding his outreach programme, with a view to exploring what role UNESCO could play in promoting awareness of Holocaust remembrance through education and in combating all forms of Holocaust denial” 중 exploring 뒤에 “in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를 삽입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영국, 쿠웨이트, 태국, 이태리, 페루, 멕시코, 피지, 과테말라, 캐나다, 중국, 카타르, 이스라엘, 스페인, 독일, 일본, 모로코, 콜롬비아, 터키, 벨기에, 불가리아, 베네수엘라, 칠레, 베트남, 파키스탄 등이 동 결의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동 결의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한편, 이란은 동 결의안이 정치적 문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함. 이집트는 유대인대학살 외에도 인류가 겪었던 다른 많은 역사적 아픔들도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para 6의 문장 마지막에 “all types of crime against humanity”를 삽입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시리아, 과테말라, 이란,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지지를 표명함. 읍저버 자격으로 참가한 팔레스타인 또한 동 결의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결의안 문구 향상을 위한 유네스코의 윤리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언급하고 유네스코가 이 같은 고통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

- Para 6의 6 수정안들에 대한 긴 토의가 있었으나 회원국들 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결국, 동 결의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para 6은 미국이 제안한 수정안 ‘in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와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mentioned above’가 원안에 삽입되어 채택됨(34C/78 Prov. Corr, 34C/COM.PRX/2 Corr). 한편,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등은 발언을 통해 동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함. 그러나 이들 나라는 인종, 종교 및 신념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갈등을 반대한다는 내용과, 동 결의안 para6 에 "all types of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문구가 추가되길 희망했다는 내용과, 유네스코가 문화 간 이해, 문화 간 대화사업, 교육사업 등을 통해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회의 기록에 남겨줄 것을 요청함.
- (결의안 para 6. 전문은 다음과 같음)
"Request the Director-General to consult with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regarding his outreach programme, with a view to exploring, *in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what role UNESCO could play in promoting awareness of Holocaust remembrance through education and in combating all forms of Holocaust denial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mentioned above*"

5)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Part II.B. 유네스코 참여사업)

동 먼저 유네스코 참여사업에 관해 프랑스는 참여사업의 주된 수혜자는 개발도상국, 최빈국 등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 하지만, 동 사업이 남북협력 (North-South Cooperation) 등을 촉진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태평양 지역 16개국의 대표자격으로 발언한 뉴질랜드는 유네스코 참여사업이 회원국내 유네스코의 가시성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뉴질랜드는 자신들이 제출한 참여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모두 주변 소도국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동 사업이 선진국-개도국 간의 협력 증진에 계속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함. 우리나라는 프랑스 및 뉴질랜드의 발언을 지지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신청한 참여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모두 개도국 혹은 최빈국 국가였음을 언급하면서 동 사업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촉진 노력이 제한받아서 안 된다고 강조함.

기니, 세네갈, 케냐, 나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갬비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하이티, 세네갈, 쿠바, 짐바브웨, 알제리,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가나, 카메룬, 콩고, 우간다, 라트비아, 파나마, 등 주로 아프리카 및 개도국 나라들의 경우 참여사업 예산이 미화 20,000,000불에서 미화 18,800,000불로 줄어든 것에 대해 반대하며 동 사업을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청함.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토고, 가나 등은 OECD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참여사업 신청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유네스코 참여사업의 경우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미국, 영국, 스리랑카, 리투아니아, 중국, 덴마크, 타지키스탄, 은 유네스코 참여사업의 행정절차가 더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함.

- 그라나다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된 참여사업들을 이행하고 주어진 재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34C/6 Add 결의안 09000, para 12 과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이 같은 마감 시한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마감 시한 언급부분 삭제를 요청함을 시작으로 긴 토의가 있었으나 ERC/ADG의 중재로 마감시한을 언급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유네스코의 재정관련 규정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대신 삽입함.

- 그라나다와 캐나다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 참여사업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결의안 마지막 부분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채택됨.
- 모나코는 para 7, 유네스코와 공식 혹은 업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NGO도 최소 2개 이상 회원국의 지지를 얻을 경우 최대 2개의 참여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와 관련 단순히 사업과 관련 있는 회원국 외에도 ‘사업이 실행될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함.
- 유네스코 참여사업의 34C/5 예산안 미화 18,800,000불이 33C/5의 미화 20,000,000불, 32C/5의 미화 22,000,000불에 비해 계속 축소되어온 것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34C/5 예산이 미화 6억3천1백만 불 보다 늘어나지 않는 한 참여사업 예산의 증액은 어렵다는 사무국의 주장에 따라 결국, 상기 두 나라의 수정안과 함께 PRX 분과위는 34C/5 Corr. 및 34C/6 Add.의 수정안을 포함, 34C/5 2nd version Vol 1. para 09000을 총회가 승인할 것을 권고함.

6)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Part III.B. 대외관계 및 협력)

프랑스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상주대표부는 물론 국가위원회와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치하함.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뉴질랜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 갬비아, 스리랑카, 중국, 타지키스탄, 알제리,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등은 회원국 국가위원회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네스코 조직 분산화 과정에서 회원국 국가위원회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은 유네스코 참여사업 외에 유네스코 정규사업의 일부도 회원국 국가위원회를 위해 이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케냐, 캐나다, 모나코, 산타루시아, 독일, 타지키스탄,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유네스코가 NGO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PRX 분과위는 34C/5 Corr. 및 34C/6 Add.의 수정안을 포함, 34C/5 2nd version Vol 1. para 12000을 총회가 승인할 것을 권고함.

7) 의제 6.2. 유네스코의 지역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정의 별도의 논의 없이 원안대로 채택됨.

8) 의제 5.1. 2008-2009년 기간 중 유네스코가 연계될 수 있는 기념일

PRX 분과위는 Para II(c) 유네스코가 연계될 수 있는 기념일과 관련, “전 인류

차원에서의 업적, 성취를 일궈낸 개인”, 또는 “유네스코 의 이상 및 가치 증진과 관련 세계적 혹은 적어도 지역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행사” 등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함과 아울러 Para IIIA(c)에서 “학제간 위원회가 가능한 한 모든 지역의 기념일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한 후 34C/14를 총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9) 의제 10.1. 유네스코 사업에 기여한 NGO에 대한 집행이사회 6개년 보고 별도의 논의 없이 원안대로 채택됨.

10)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Part II.C, Chapter2 - 유네스코 펠로우쉽)

첫번째 발언자로 논의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이 보다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나라에 제공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유네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수혜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발언함. 한국에 이어 쿠웨이트도 유네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이 최빈국들을 위해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하면서 향후 유네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의 도움을 포기한다고 밝힘.

한편, 34C/DR 18 (COM.ED-PRX)를 제안한 스웨덴 및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네델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은 유네스코 펠로우쉽에 할당된 예산 중 행정비용(미화 639,200불)이 사업비용(미화 1,136,700불)의 50 퍼센트를 넘는 등 사업의 실질적 효과 및 재원의 효과적 사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함. 아울러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며 유네스코 펠로우쉽보다 훨씬 큰 규모로, 또 조직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을 볼때, 유네스코 펠로우쉽 사업의 효과 및 가시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강조하면서 펠로우쉽사업 폐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유네스코 우선순위 사업부문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러나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카메룬, 베네수엘라, 멕시코, 중국, 그라나다, 페루, 모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브라질, 스리랑카, 짐바브웨, 볼리비아, 말리, 바베이도스, 알제리, 쿠바, 이집트,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이탈리아, 러시아, 크로아시아, 모나코, 칠레, 나이지리아 등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펠로우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스웨덴이 제안한 34C/DR 18 (COM.ED-PRX: 유네스코 펠로우쉽사업과 향후 전망 및 예측사업을 폐지, 집행이사회 비용 일부 축소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유네스코 IIEP, UIL, IICBA 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함)을 강력히 반대함. 결국 PRX 분과위 의장은 대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한 대로 동 결의안을 채택함.

- PRX 분과위는 34C/5 Corr. 및 34C/6 Add.의 수정안을 포함, 34C/5 2nd version Vol 1. para 10200을 총회가 승인할 것을 권고함.
- 34C/DR 18(COM.ED-PRX)은 채택되지 않음.

11)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Part II.C Chapter6-전망과 예측)

스웨덴이 제안한 34C/DR 18의 지지국들은 그 동안 유네스코 '전망과 예측'사업 부서의 성과가 지극히 미미함을 비판하며 동 사업은 유네스코의 어느 특정 사업 부서에 책임져야할 사항이 아니라 유네스코 모든 사업분야에서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동 사업의 폐지를 주장함. 특히, 펠로우쉽 폐지를 반대했던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바베이도스 등도 유네스코 '전망과 예측'사업 부서의 역할 및 성과가 기대 이하였음을 강력히 비판하며 동 사업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함. 이에 반해,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중국, 모로코, 브라질, 짐바브웨, 말리,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은 동 사업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34C/DR 18(COM.ED-PRX)를 반대함.

- 회원국들 간의 이 같은 상반된 의견을 고려, 멕시코, 스웨덴 등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일부 국가의 부분적인 자구 수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수정함.
 - 먼저 결의안 서두에서 총회는 "authorizes the DG"를 "invite the DG"로 대체함.
 - para(b) 에서는 Anticipation and Foresight에 대한 Intersectoral platform 을 만들고 사무총장이 의장을 맡고,
 - para(c)에서는 사업부문에서의 Intersectoral platform 개발에 예산을 할당 하며,
 - para(d)에서는 사무총장이의 '전망과 예측'사업에 대한 평가 및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79차 집행이사회 및 제35차 총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 PRX 분과위는 34C/5 Corr. 및 34C/6 Add.의 수정안을 포함, 수정된 34C/5 2nd version Vol 1. para 10600을 총회가 승인할 것을 권고함.
- 34C/DR 18(COM.ED-PRX)은 채택되지 않음.

12) 의제 5.7. 유네스코 이름, 약성어, 로고 및 인터넷 도메인명 사용에 관한 지침

먼저 리투아니아는 유네스코 로고 블록의 사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유네스코 로고 사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서가 '로고 매뉴

얼' 등의 형태로 제공되길 희망함. 한편 우리나라는 발언을 통해 유네스코 이름, 로고 등의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 절차도 제공을 요청함과 함께 유네스코 로고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기구, 단체가 신청서 상에 실제 사용할 로고 도안 첨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유네스코 로고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덴마크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프랑스와 캐나다 등은 유네스코 로고 사용 승인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청함. 독일, 중국 등은 로고사용에 관한 지침의 이행과 관련 사무국이 회원국 국가위원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함.

- PRX 분과위원회는 동 의제와 관련 법률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34C/26 para 15의 결의안 초안을 채택함.

13)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Part III.C, Chapter3 - 홍보사업)

브라질은 유네스코 홍보사업의 성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 사업에 할당된 예산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산타루시아, 볼리비아 등이 지지를 표명함. 캐나다 또한 유네스코 조직 가시성 증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네스코 웹사이트 활용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중국, 모로코, 스리랑카 등은 조직 가시성 증진과 관련 유네스코 홍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 홍보사업을 지지함. 특히, 프랑스, 이란 등은 유네스코 웹사이트 상의 정보를 유네스코의 모든 실무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언어 다양성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함.

한편 브라질은 유네스코 홍보사업 사업비 미화 2,565,800불 중 미화 545,000불을 삭감하여 유네스코 해양학 정부간위원회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산타루시아, 포르투갈, 그라나다, 볼리비아, 페루, 칠레 등이 브라질의 제안을 지지하였으나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당장 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함. 이에 네델란드는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되 예산 부분은 빈 괄호로 남겨 놓음으로서 추후 joint meeting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함.

- 스리랑카는 34C/6 Add. 결의안 10300 para 1의 "(vi) 유네스코 꾸리에 온라인판의 6개 유네스코 공식어 출판 및 보급 사업을 계속한다."는 문장 뒤에 "관련 언론기관 및 관련 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PRX 분과위원회가 이를 채택함.
- PRX 분과위 의장은 34C5 (2nd version) Vol1과 34C/5 corr, 34C/6 add 결의

안 10300을 채택하되 제안된 예산액을 괄호 안에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joint meeting에서 다시 토론하여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PRX 분과위원회가 이에 동의함.

14)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Part II.C, Chapter4 - 전략기획 및 사업 모니터링)

프랑스가 문명간 대화 사업부분이 향후 주요 전략사업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 외에는 회원국들의 별도 논의 없이, PRX 분과위는 34C/5 Corr. 및 34C/6 Add.의 수정안을 포함, 34C/5 2nd version Vol 1. para 10400을 총회가 승인할 것을 권고하기로 함.

15) 의제 3.1.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안 (34C/4)심의 및 채택

PRX 분과위는 총회가 유네스코 중기전략안(34C/4) 및 중기전략안에 대한 집행이사회 권고안(34C/11)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16) 의제 3.2. 2010-2011 사업 및 예산안(34C/5) 준비

PRX 분과위는 총회가 34C/7 문서를 참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17) 의제 6.1. 유네스코 3대 기구 간 관계에 관한 33C/결의안 92의 이행관련 문제

스웨덴은 집행이사회 순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권고 21번이 아직까지 회원국들 간에 합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그라나다, 영국, 스페인, 산타루시아, 독일 등은 발언을 통해 총회, 집행이사회, 사무국 각각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가 현장에 명시된 대로 잘 지켜져야 함을 강조함. 특히 산타루시아는 최근 집행이사회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데 비해 총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영국, 산타루시아, 그라나다 등은 사무국의 총회 회원국에 대한 고압적 자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사무국 본연의 기능 수행에 충실할 것을 요청함. 한편 권고 25번 '유네스코 총회가 채택한 모든 협약 및 권고의 적용 문제'에 관해 법률위원회 대표는 동 권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차 총회에서 동 항을 심의,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률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함.

- 결국 PRX 분과위원회는 총회가 34C/19 및 34C/19(Annex)Rev를 참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 의제 6.1. 유네스코 3대 기구 간 관계에 관한 33C/결의안 92의 이행과 관련 프랑스, 그레나다, 네델란드, 노르웨이, 세인트루시아 등이 공동 제안안 34C/COM.PRX/DR.2가 별도의 논의 없이 채택됨. (33C/결의안 92의 권고사항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총회의장, 집행이사회 의장 및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이행된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들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18) 의제 2.2. 집행이사회 보고서

산타루시아는 동 집행이사회 보고에 2006-2007년도 사업 (33C/5)의 이행에 대한 보고내용은 물론 이전 사업회기 중 거둔 성과(34C/3)내용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PRX 분과위가 이를 채택함. PRX 분과위는 총회가 이러한 일부 자구 수정을 포함, 34C/9 Part II 및 34C/9 part II Add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 브라질이 제안한 34C/COM.PRX/DR1은 ‘아프리카 및 디아스포라 지성인 2차 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175EX21)의 이행을 위해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연합위원회 및 그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으로서 베닌, 짐바브웨, 중국 등의 지지와 함께 채택됨.

19) 의제 14.3. 우크라이나 대기근 희생자 상기안

네델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폴란드, 미국, 카자흐스탄, 이집트,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추가 논의 없이 채택됨. 다만 러시아가 동 결의안의 불어 및 러시아어 version의 번역상 오류를 지적함에 따라 영문 결의안만이 유효 결의안으로 채택됨.

나. 교육 분과위원회 (ED)

1) 의장단 선출

- a. 의장: Mr Ricardo Henriques (브라질)
- b. 부의장: Mr Gerald Anderson (미국)
Mr Lilian Zamfiroiu (루마니아)
Mr Manda Kizabi (콩고민주공화국)
Ms Madiha Alshibani (오만)
- c. 서기: Ms Kam Foong Choong (말레이시아)

2) 교육장관회의 성명서

2007년 10월 19일-20일 양일간에 걸쳐 ‘교육과 경제발전에 대한 교육장관 원탁회의’가 개최됨. Mr. Angel Gurria OECD사무총장, 청소년포럼 대표와 96개국 교육장관들이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토론 내용을 종합한 성명서를 제출하였음.

- 제2분과위는 총회가 본 성명서를 지지할 것을 권고함.

3) IBE, IIEP, UIL, IICBA, IESALC에 관한 보고

각 기관의 집행이사회 의장들이 2006-07 사업에 대해 보고하였음. IICBA는 중국의 75만불 지원과 이디오피아 교육부의 부지 제공에 대한 감사를 표함. UIL은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평생학습세미나’를 사업보고에서 소개하였으며 2008-9년에는 LIFE(세력화를 위한 문해사업)을 위한 평생학습과 제6차 성인교육회의(2009, 브라질) 개최 준비에 주력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 제2분과위는 총회가 본 사업보고를 영두에 둘 것을 권고함.

4) 의제 3.1.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안

많은 회원국들이 중기전략에 있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뉴질랜드와 독일은 교육 우수사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협동학교 네트워크의 기여와 중요성을, 일본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언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총 23개국 대표가 본 의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음.

- 제2분과위는 총회에 중장기 전략 Strategic Programme Objective 2를 다음과 같은 문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 역량, 도구 개발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증진”

5) 의제 4.2. 2008-2009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회원국들 다수가 유네스코 산하 교육연구소, 특히 IIEP, IICBA, UIL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유네스코가 예산 배정에 더 많은 고려를 할 것을 촉구하였음.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ASPnet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담당부서에 충분한 인력 조달이 필요함을 언급함. 중국은 유네스코가 인구 문제 및 고등교육 관련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일본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일본 외 다른 회원국들의 보다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청함. 북한은 지식사회 건설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 등 소외 지역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빈곤 퇴치를 위해 남남 및 북남남협력 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우리 측은 양질의 EFA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과 IICBA에 대한 중국의 지원(75만불)에 감사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교사역량강화를 위해 IICBA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및 아직 사무실이 들어갈 건물조차 없는 IICBA를 위해서 특별기금 조성 등의 노력을 촉구하였음. 이와 관련, 한국이 아프리카 교사역량강화를 목적으로 50만불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음. 기타 53개 회원국과 3개의 NGO가 토론에 참여하였음.

- 관련된 15개의 DR중 7개가 위원회의 일부 수정을 거쳐 채택됨. (DR9, DR15, DR50, DR10, DR16, DR46, DR40)
- 한국은 오스트리아가 ASPnet 강화 및 인력 보충과 관련하여 제출한 DR에 대해 co-sponsor로 지지하였음.
- 프랑스가 DG에게 고등교육기관들의 국제적 등급(ranking)을 위한 기준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DR24)이 있었음. '등급(ranking)'이라는 용어가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분과위는 이를 삭제함.
- 스웨덴이 IIEP, UIL, IICBA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결의안(DR18)이 있었으나 영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결정을 분과위 합동회의로 미루기로 함.

6) 의제 5.3. 아랍 점령지의 교육, 문화 기관에 관한 33C/R70의 이행

교육 ADG는 2006-2007 기간 중 관련 유네스코 사업에 대해 보고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 경제 침체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등교육에 관한 지원 및 노르웨이의 30만불 지원과 같은 국제 지원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이 의제는 논쟁 없이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음을 설명함. 원안대로 채택됨.

7) 의제 8.6. 교육차별철폐협약에 관한 7차 회원국 자문회의의 결과

교육 ADG는 2000-2005년간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51개국이 참가했음을 보고

하고, 1)교육차별 철폐, 2) 교육기회의 균등, 3)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 증진에 관한 이행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함. 미국이 본 협약의 대상국을 협약 가입국만이 아닌 회원국까지 포함하여 교육차별철폐 증진 활동을 권장할 것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 통과됨.

8) 의제 5.15 중남미 지역 교육 사업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규정 개정

정부간 위원회(PRELAC) 규정 중 정기 회의 개최주기 및 의장단 선출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2007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현 규정에 따르면 규정 개정은 반드시 유네스코 총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향후 2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이번에 국한하여 179차 집행이사회에 관련 결정을 위임하자는 내용임. 이에 대해 사무국 법률담당관이 집행위가 35차 총회에 그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해 결과를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수정, 통과됨.

9) 의제 5.4. EFA 사업에 관한 DG 보고

노르웨이, 인도 뉴질랜드 몇몇 개국은 EFA 보고서가 사업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함. 일본은 EFA를 위한 GAP(Global Action Plan:지구적 행동계획)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UNDESD를 위한 유네스코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사업을 위해 일본 정부는 170만불을 지원했다고 밝힘. 또한 유네스코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고 발언함. 독일은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2005-2014)의 후반기 사업 성공을 위해 중간점검을 위한 국제회의를 2009년 개최할 것임을 언급함.

● 제2분과위는 총회에 180차 집행이사회와 35차 총회 때 유네스코가 EFA 성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또한 결과에 근거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브라질 수정안(DR2)와 관련하여, 브라질은 2009년도에 세계고등교육회의 +10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C/5에 언급할 것을 제안함. 우리측은 이 회의가 남남협력이나 EFA 목표달성과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관련 DR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2009년이 UNDESD 중간점검회의(독일),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브라질)를 개최하므로 개최시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은 본 회의 개최가 비정규예산임을 확실하게 문구에 넣을 것을 강조함. 제2분과위는 총회에서 본 회의를 명시하고 회원국이 이 회의에 대한 비정규 예산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넣은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요청함.

● 아르헨티나 수정안(DR3)과 관련하여, 제2분과위는 총회에 유네스코가 교육부채 탕감 사업을 지속하는 의미에서 실무작업단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본 수정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함.

● 말리가 제출한 수정안(DR4)과 관련하여, 제2분과위는 문해와 비형식교육 증진에 유네스코가 노력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총회가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함.

● 쿠바 수정안(DR5)과 관련하여, 제2분과위는 유네스코가 문해관련 주요 국제 회의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총회가 본 수정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함.

10) 의제 5.1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교사훈련사업(TTISSA) 강화(미국)

TTISSA활동에 대한 내부 평가 결과는 제179차 집행이사회에, 외부 평가를 포함한 보고는 제182차 집행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11) 의제 5.14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UNDESD)의 증진(DR 1, 일본, 독일)

ESD 증진에 관한 수정안으로 일본과 독일이 제출하고 20여개국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비정규예산사업으로 2009년도에 UNDESD 중간점검을 위한 세계회의를 독일에서 개최기로 제안함. 우리 측은 본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개최시기를 2009년 총회 이전에 해 줄 것을 요청함.

● 제2분과위는 총회는 독일이 2009년 UNDESD 중간점검 회의 개최 의사를 적극 환영하며, 35차 총회에서 DESD 이행에 관한 진행보고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본 수정안을 채택해 줄 것을 권고함.

12) 의제 3.2. 2010-2011 사업 및 예산안 준비(35 C/5)

사무국은 아프리카와 양성평등에 대한 우선순위는 유지될 것임을 밝힘. 우리측은 2010년 세계예술교육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고, 관련 논의가 이번 총회에서 긍정적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다. 자연과학 분과위원회 (SC)

1) 과학분과 의장단

- a. 의장 Mr Eriabu Lugujjo (우간다)
- b. 부의장 Mr Alexander Boksenberg (영국)
 - Ms Helena Illnerova (체코)
 - Mr Iván Avial Beloso (베네수엘라)
 - Mr T Ramasami (인도)
- c. 보고자 Abdulsalam El-Qallali (리비아)

2) 의제 3.1 2008-2013년 중기전략 검토 및 채택

대다수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 깨끗한 음용수 공급,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경감 및 대비, 기초과학 지원 등의 문제를 유네스코 과학사업의 핵심과제로 지목하고,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IHP(국제수문학사업), MAB(인간과생물권사업), IBSP(국제기초과학사업)과 같은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른 유엔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활동영역에서 학제간 통합접근을 통한 유네스코 고유의 기여 노력을 요구

- 사업수행 방식과 관련 서구 국가들은 투명성 제고 및 사업결과의 양적평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중기전략이 중간에 수정이 가능한 가변전략(rolling strategy)인 점을 들어 차기 2개년 사업수행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전략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
- 미국은 2009년 중기전략 재조정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양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 안전한 마실 물과 수자원 관리 문제를 강조하면서 세계 과학계의 기준에 맞춰 유네스코 과학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peer review) 제도를 요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유네스코 과학사업이 정책자문과 역량증진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이와 관계없는 다른 사업들은 과감히 중단할 것을 요구

- 노르웨이는 주요사업 II 및 III 총괄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 “유네스코 과학 및 인문사회과학사업은 파편화되고 학계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사무국이 제시한 중기전략은 과학계에 아무 변화를 줄 수 없다고 비판. 기존 부서(sector) 중심 사업계획 수립 관행 반복을 타파하고 문제중심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 오래된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수용할 공간 확보를 주장

반면 아프리카 및 중남미 개도국들은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 특히 많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관련, 선진국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유네스코가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

- 케냐는 아프리카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가장 적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고 유네스코의 지원을 요구. 기후변화를 중기전략의 중심주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ISP)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지식 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 한편 짐바브웨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아프리카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

한국은 IOC, IHP 등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정을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MAB 접경생물권보전지역 개념을 활용하여 서해 해양평화공원 설립 추진을 모색하였음을 소개

- 일본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업간 공동 목표 설정을 요청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공동목표로 제안. 중국은 아프리카에 부여된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아프리카동맹의 과학기술발전 행동계획을 언급

사무국은 답변을 통해 중기전략이 가변전략인 만큼 비판적 의견이 추후 반영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량증진 사업이 양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기후변화 및 재해경감 사업에서 교육부문과 협력하여 교육 요소를 강화할 예정임을 소개. 한국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영

향후 선진국 그룹의 유네스코 사업 수 축소 및 사업효과 배가 노력 요구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개도국 그룹은 자국의 과학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유네스코에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대응을 취해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3) 의제 4.2 2008-2009 사업계획 및 예산(C/5) 심의 및 승인

대다수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물 문제 대응과 기초과학 진흥 및 과학교육 개선 과제를 거론함.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부여된 우선순위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나이지리아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2007년 6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IOC 총회는 동 회원국들로 하여금 3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IOC 강화 및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결의한 바, 대다수 회원국은 IOC 활동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면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 브라질을 필두로 중남미 국가와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IOC 강화 요구

- 미국,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서구국가들은 주요사업 II 및 III 총괄평가위원회가 권고한 과학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과학사업 전반의 통일성과 수준제고를 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동 위원회가 예산 및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을 들어 반대함
-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사업계획상의 기대결과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
- 한국은 아프리카 과학기술 발전 사업을 지지하면서 아프리카 과학도시 발전 지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의 중심역할을 강조함.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 신탁기금을 계속 제공할 계획을 소개하고 과학문화재단이 11월 중순 서울에서 유네스코와 공동주최하는 ‘과학대중화 아태지역 포럼’에 대한 아태지역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 일본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하면서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의 공통주제로 기후변화와 재해경감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은 자연과학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명
- 사무국은 답변에서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차기 2개년 사업계획은 과학사업 총괄평가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1단계인 점을 상기시키면서 과학자문위원회 설립 제안에 관해서 회원국간 의견이 분열되어 있음을 지적. 과학기술 분야의 남남협력 및 남남북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지역차원에서 MAB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회원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특히 IOC 사무총장은 답변을 통해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보고서 저자의 90%가 IOC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IOC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
- 과학분과위원회는 2008-2009년 사업 및 예산 초안중 177차 집행이사회에서 구성된 초안작성그룹의 수정안(34C/6Add)을 채택하였으나 자연과학분야의 사업우선순위 조정을 둘러싸고 장시간 의견 대립 끝에 최종 결정은 주요사업 II 및 III 총괄평가를 다루게 되는 인문사회과학분과와의 공동회의에서 내리기로 함.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서구국가들은 유네스코 과학사업이 정책자문과 역량증진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과학기술의 역량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들면서 기존 초안에서 우선순위 2로 제시된 과학기술 정책자문 및 역량증진을 우선순위 1로 수정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케냐, 칠레, 브라질 등은

2개년 사업계획 우선순위 조정시 6개년 중기전략과의 불일치와 같은 기술적 문제와 함께 기존 우선순위 1로 제시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라는 주제는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와 같이 개도국들이 직면한 긴급한 과제이므로 마땅히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함

DR 39 (브라질 제출, 세인트루시아 지지) IOC 예산 1,045,000불 증액안

- IOC 예산 증액을 요구한 브라질의 수정결의안 39호에 관한 논의에서 다수 회원국은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내부의 여타 사업예산 감액을 통한 IOC 예산 증액에 반대하면서 과학사업 외부 재원을 적극 동원할 것을 요구함. 특히 벨기에는 집행이사회 회기 단축이나 사무국 직원 업무 재조정 등을 통해 운영비를 감축하여 이를 IOC 예산으로 돌릴 것을 제안함. 영국은 구체적인 예산안 자료가 없으므로 IOC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안 조정 작업이 당장 불가능하므로 일단 IOC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과학사업예산 이외의 예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각분과 합동회의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음
- 11월 2일 열린 분과위원회 합동회의(Joint Meeting of Commissions)는 총회가 이미 631백만불 예산안을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분과위원회와 과학분과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한 브라질 수정안을 논의함(행정분과는 기 개최된 회의에서 예산안 Part I(총회 및 집행이사회 운영비) 및 Part III(사업지원비)에서 50만불을 삭감하여 Part II(사업비)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어느 사업에 동 예산을 투입할지는 논의를 유보함). 핀란드, 인도, 포르투갈,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영국, 바베이도스, 노르웨이, 이란, 일본, 독일, 브라질, 덴마크 등이 발언을 통해 상기 추가사업비의 IOC 지원을 적극 지지 또는 찬성하였고, 유네스코 교육기관(IIEP, UIL, IICBA) 지원을 요구한 스웨덴 수정안(DR 18)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상 IOC보다 낮다는 의견으로 수렴. 특히 인도 대사는 IOC 내부에서 IOC가 유네스코 산하기구로 존속할 것인지 유엔산하로 독립할 것인지에 관한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IOC가 유네스코 내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음
- 이에 따라 사업비 추가분 50만불을 IOC 예산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던 중 브라질이 IOC의 당초 결의는 100만불 증액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동 증액분 외에 현 회기(2006-2007)의 집행잔액 중 545천불을 차기 회기(2008-2009) IOC 예산으로 이월할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일본이 회기에 발생한 잔액은 회원국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임을 들어 잔액을 차기회기의 특정사업에 이월한다는 결의를 총회가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자문관의 견해를 요청하였고, 미국, 인도, 독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회계법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함
- 사무국 법률자문관은 회기 집행잔액의 회원국 반환이 맞으며 예산잔액을

special account를 갖고 있는 기구에 이체하여 쓰는 것은 회계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무국 회계담당관의 의견 청취를 제안. 회계담당관은 회기종료후 집행이사회에 결산보고를 하고 집행잔액을 회원국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는 반환하지 않고 이월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당 합동회의 논의사안은 회기 종료 전에 IOC에 이체하자는 것이므로 회원국에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회계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특히 총회가 그렇게 결정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

- 이후 미국대사 등이 문구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새 문구 또한 회계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관련 회계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총회의 결정 권한 범위 등에 대한 각국 대표 및 사무국 법률자문관/회계담당관의 준비 부족 상태에서 법리논쟁이 장시간 전개됨. 더욱이 스웨덴이 현 회기 집행잔액을 IOC 예산증액에 이월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예산증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짐. 이에 의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당사자간 실무회의를 열어 그 결과를 놓고 오후회의를 속개하자고 제안하여 정회함
- 오후 속개된 합동회의는 당사자간 합의안을 검토한 바, 동 안은 법리논쟁의 대상이 된 ‘집행잔액 545천불을 IOC로 이체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총장은 합동회의 논의의 취지를 반영하여 IOC 및 교육기관에 추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문구로 대체. 이 안에 대해서 인도대사 등이 교유기관을 IOC와 동급으로 병렬한 것은 오전 회의의 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다른 나라들이 동조함. 결국 최종안은 ‘특히 IOC를 추가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지원방안도 찾는다’로 조정됨

4) 의제 3.2 2010-2011년 사업계획 준비

미국, 독일, 중국, 칠레, 페루 등은 자연과학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감축에 우려를 표명하고 더 이상 감액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아울러 독일과 칠레 등은 주요사업노선(Main Line of Action)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축소를 요구

- 영국은 필요없는 자료 출판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 모두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함. 2008-2009년에 과학자문위원회 설립이 어려울 경우 2010-2011년 회기에 구성할 것을 요구함
- 사무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201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협의가 시작되므로 이 과정을 통해 회원국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답변

5) 의제 5.10 유네스코와 네덜란드 물교육연구소(IHE)간 운영협약 갱신

자연과학분야 카테고리 I 기관인 물교육연구소(IHE)와 유네스코간 운영협약이 2008년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인 바, IHE 대표는 동 기관이 유네스코 카테고리 I 기관으로 운영된 지난 4년간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운영협약 갱신에 관한 회원국 협조를 요청함. IHE는 물분야 펠로십을 통해 개도국 물관리 관계자에게 석사 및 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가 운영비의 약 80%를 지원함. 네덜란드는 발언을 통해 운영협약 갱신 및 운영비 지원액 증액 계획을 공개

- 케냐, 인도, 파키스탄, 에쿠아도르 등 다수 회원국이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액 증액 계획에 감사를 표하고 물교육 분야의 세계적 기관인 IHE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국은 IHE가 물분야 역량증진을 위한 남북협력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운영협약 갱신을 지지

6) 의제 5.6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 설립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 센터를 비롯한 자연과학분야 9개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제안에 대해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 폴란드, 중국 등 압도적 다수 국가들이 환영 입장을 표명함. 동 기관은 유네스코의 가시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역량증진에서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표명됨. 전반적인 지지 분위기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은 수 증가에 따른 활동수준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 미국은 러시아가 제안한 지속가능에너지센터와 관련 다른 유엔기구의 에너지 관련 활동에 관한 보고가 타당성조사에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 보고가 제출될 때까지 당 사안 논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가 이어지자 당 사안 결정을 지연시킬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면서 추후 여타 유엔기구의 관련활동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중복을 방지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의제 안건으로 상정된 모든 신청안이 통과됨

7) 의제 5.8 중앙아시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CARE) 준비

카자흐스탄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주최한 “중앙아시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지역장관회의(2006년 5월 알마타)의 결의에 따라 ‘중앙아시아 재생가능에너지(CARE)’ 사업을 유네스코가 개발 및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해 공여자 포럼을 유네스코가 조직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집요하게 사업제안 절차와 형식 문제를 제기하며 원안 의결을 저지한 반면, 브라질, 벨라루스, 카메룬, 베네수엘라 등 다수 국가들은 지지 입장을 표명함. 한편 멕시코, 칠레, 이집트, 우

즈베키스탄 등은 사업 목적에는 찬동하나 내용에 대한 추가검토 내지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당 사안에 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문의

- 미국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유네스코에는 새로운 이슈로서 FAO, UNEP, IAEA, UNDP 등 에너지를 다루는 다른 유엔기구와 달리 유네스코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동 사안은 카테고리 II 기구 설립과 달리 유네스코의 정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는 문제로서 전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유네스코의 역할 및 여타 유엔기구의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의 서면보고가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
- 체코는 유네스코에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직원 수가 몇인지, 유네스코가 다른 관련 유엔기구와 에너지 문제에 관해 조정하고 있는지, 유네스코가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능력이 있는지를 질문함
- 네덜란드는 당 사업이 2개년 사업계획(C/5) 논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안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네스코의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역설함. 사업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국이 언급한 사무총장 보고서 제시를 요구
- 독일은 사업 목적이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는 점을 들어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했음을 언급
- 캐나다는 아프리카 우선순위에 집중할 필요를 지적하면서 자원 분산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지역들의 발의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사무총장 보고서 제시 요청
- 영국은 총회의사규칙 16조에 명시된 바 총회에 의제로 상정된 신규사업이 다른 유엔기구와 관련이 있을 경우 사무총장이 이들 유엔기구와의 조정에 필요한 수단들에 관해 서면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거론하고, 당 사안은 신규사업이면서 다른 유엔기구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의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총회에 상정될 수 없는 안건임을 강력하게 주장. 현 회기에서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의사규칙이 정한대로 사무총장의 관련 서면보고서가 나온 뒤 논의할 것을 요구
- 브라질과 벨라루스, 베네수엘라는 이들 서구국가들의 반대에 맞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 특히 브라질은 다른 유엔기구와 중복문제와 관련 사안이 중대할 경우 여러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다만 이들간 조정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당 사안은 알마타 지역장관회의 개최를 결정한 집행이사회 171차 결의 61호를 근거로 신규사업이 아님을 주장
- 당 사안에 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시통역 제한 시간인 하오 9시를 전후하여 미국, 캐나다, 독일의 절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좁혀갔으나 최종 결정에는 도달하지 못함. 이들은 알마타 장관회의 후속활동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유

관 유엔기구의 활동과 조정에 필요한 방안에 관한 동 기구들과의 협의에 관해 179차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것으로 결의안 수정안을 제시하여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의 동의를 얻어냈으나, 원안에 제시된 결의안 전문(preamble)에 언급된 에너지 관련 유엔체제 일관성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 문제가 있어 지지할 수 없다는 영국의 입장을 캐나다, 네덜란드가 지지하면서 동 전문 삭제후 결의안 수정안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자 다시 교착상태에 빠짐. 이에 의장은 사무국이 전문을 단 한 단락으로 만들어 합의에 도달한 결의안 수정안과 함께 최종보고서 채택회의에 제출하여 최종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여 회의를 마침

8) 의제 3.3 주요사업 II 및 III 총괄평가

사무부총장 Mr. Barbosa는 사무국 안건 설명을 통해 일부 회원국이 과학사업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석학들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사무총장의 입장은 동 위원회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피력

-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 설립을 통해 유네스코 과학사업이 진정으로 개도국 과학기술 발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자고 호소하였으나, 브라질, 멕시코, 쿠바,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과 케냐,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 및 인도는 동 위원회의 운영비용 문제와 과학사업 정부간위원회나 집행이사회와 같은 기존 논의구조와 중복 또는 옥상옥이 되는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독일, 한국, 일본, 중국 등은 동 건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논의시 동 위원회 설립을 지지했던 미국은 입장을 수정하여 사무국의 동건 관련 이행방안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새로운 자문기구 설립이 아닌 총괄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유네스코가 계속 활용할 것을 제안
- 사무국 답변에 나선 Mr. Barbosa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우려를 표명. 제한된 예산을 감안하여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과학사업 개혁은 차기 중기전략 기간중 지속될 과정으로서 단기간에 완료할 수 없음을 강조. 현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시 이미 거친 평가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특히 사업회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임을 역설. 아울러 총괄평가위원회의 매회 회의비용이 4만불에 달하지만 회원국이 이를 위해 제공한 기여금은 15만불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유네스코에 대한 요구와 재정기여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
- 동건 사무국 결정안에 대하여 노르웨이가 구두 수정안을 제안하자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그룹과 케냐가 서면제출과 검토시간을 요청하고 미국이 수정안 검

토에 적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정회 및 서면제출을 요구하여, 동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분과 합동회의는 동건 논의를 중단하고 여타 안건 심의에 들어감

- 6시간 뒤 속개된 동건 심의에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함. 유네스코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사업 활동 및 운영의 전략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총괄평가위원회의 결론을 주목한다는 단락을 추가하는 노르웨이 수정안에 대하여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과 케냐는 총괄평가위원회의 결론에는 부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과학사업의 중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도 있음을 지적하며 동 수정안은 그러한 평가위원회의 결론을 일방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반대함. 이에 영국, 인도네시아, 체코는 긍정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중남미 그룹은 이러한 서술이 평가위원회의 많은 결론중 특정 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미국 대사는 이 문제에 관해 176차 집행이사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있었고 힘들게 합의안에 도달했음을 상기하면서 당시 합의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브라질이 총회가 집행이사회의 언어를 그대로 반복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 이 가운데 포르투갈이 단순히 평가위원회의 결론을 주목한다는 수정안을 내고 여기에 네덜란드가 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장점과 단점에 주목한다는 수정안을 내자, 다수가 이에 동의함
-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총괄평가위원회의 외부 전문가와 작업을 계속하여 동 위원회 권고안 실행 및 과학사업의 효율과 적실성 및 다른 유엔기구와의 전략적 조정을 향상하는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것을 요청하는 스위스 수정안에 대하여, 브라질은 이러한 자문에 드는 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 수정안 전체 삭제를 요구하였고 멕시코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회원국이 그러한 자문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역설하자, 인도, 페루, 케냐,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적극 동조함. 이에 미국은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은 이메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및 다른 과학자들과 협의를 지속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줄인 수정안을 제안하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캐나다, 체코가 균형잡힌 절충안으로 평가하면서 지지함. 그러나 과테말라와 러시아가 과학사업에 관해 사무총장은 항상 외부 자문을 얻고 있음과 이러한 자문 청취는 사무총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임을 지적하고 멕시코가 왜 소수의 나라만이 참여하는 협의활동을 총회가 결의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함. 이 가운데 세인트루시아가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및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과학자들과 협의를 계속할 것을 권장(encourage)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고, 미국 대사 또한 사무총장에게 과학사업 질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과학자들과 협의할 것을 권장하며 이에 관해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하자, 브라질은 사무총장에게 평가위원회 권고안 실행에 있어 과거 위원회 외부구성원을 포함한 과학계와 광범한 협의를 수행할 것을 권장

하고 이에 관해 181차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합의에 도달함

- 마지막으로 “35 C/5 준비시 그리고 필요시 34 C/4 수정할 경우 상기 언급한 총괄평가위원회의 분석과 권고안을 고려할 것, 특히 과학정책 자문과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의 엄정하고 투명한 선정, 측정, 평가를 요구하는 권고안에 특별히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노르웨이 수정안에 대해, 미국 대사는 “34 C/4 수정”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35 C/5 준비시 평가위원회의 총괄검토를 고려하도록 요청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브라질은 35 C/5 준비시 총괄검토 고려 및 35차 총회에 이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 제출을 요청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도달함

9) DR 19 자연과학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스웨덴이 제출하고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공동 발의한 DR 19의 (i) 자연과학분야의 사업우선순위 조정, (ii) 자연과학 사업과 인문사회과학 사업간 공통우선순위 설정, (iii) 체육교육사업의 교육사업으로 통합 등을 논의함. 사무부총장 Mr Barbosa는 주요사업 II 및 III간 공통우선순위 설정은 C/4, C/5의 체계에 맞지 않고 사업간 협력은 이미 C/4, C/5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함. 멕시코, 러시아, 영국, 콜롬비아 등 대다수 회원국이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DR 제안국인 핀란드가 DR 철회를 표명함



라. 인문사회과학 분과위원회 (SHS)

1) 의장단

- a. 의장 Julius OSZLÁNYI (슬로바키아)
- b. 부의장 Laura FAXAS (도미니카)
Federico EDJO OVONO (적도 기니)
Francesco MARGIOTTA BROGLIO (이탈리아)
Rainier IBAÑA (필리핀)
- c. 보고자 Mokhtar ATTAR (알제리)

2) 의제 3.1 2008-2013년 중기전략 검토 및 채택

대다수 회원국이 세계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가 되는 사회과학 연구 진흥 (MOST: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사회변동관리사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특히 이를 위한 국가연구진흥체계 지원 사업에 높은 기대를 나타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인권사업이 유네스코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함. 다수 회원국이 사회과학사업과 자연과학 및 여타 분야와의 학제간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은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제한된 예산에 비해 목표가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전략목표 수를 줄일 것과 양적 평가가 가능한 방식의 사업계획 작성 및 일몰조항 포함 등을 제안

- 한국은 아태지역의 사회과학(MOST 사업) 강화 요구가 반영된 점을 평가하고, 평화의 문화를 위한 철학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8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여성철학자대회에 유네스코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 아울러 청소년 포럼의 결과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요청. 평화의 문화 증진에서 역사교과서 개선 및 역사대화 중요성 강조

3) 의제 4.2 2008-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및 승인 : 주요사업 III - 인문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사업 우선순위 1 “생명윤리 및 과학기술윤리” 관련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필리핀 등은 생명윤리가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차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유네스코 역할을 주문함. 미국, 호주, 체코, 영국, 네덜란드 등 서구국가들은 전차 회기 사업실적에 관한 평가 없이 차기년도 사업계획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실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1쪽짜리

자료를 요구함.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 Mr. Sané는 차기 총회부터 사업실적 보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하고, 생명윤리 분야의 새 규범설정과 관련 네덜란드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회원국간 견해가 갈라져 있다고 지적하고 총회가 이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

인문사회과학사업 우선순위 2 “사회과학 연구-정책 연계 강화” 관련 다수 회원국들이 MOST 사업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함. 칠레는 MOST 사업 예산의 65%가 인건비로 투입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예산구조 개선을 요구. 케냐는 정책지향 연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연구결과 보급과 역량증진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베네수엘라는 사회과학연구와 정책간 연계강화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평가에 신중함이 요구됨을 지적. 노르웨이는 2007년 6월에 열린 MOST 정부간이사회 결의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MOST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지향 사회과학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활용도 측정을 요구함. 한국은 국제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불관용이 평화의 문화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 협력의지를 표명함. Mr. Sané는 답변에서 향후 MOST 출판물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가평가(peer review)를 실시할 것이며, 사회과학연구자와 사회발전 장관을 한자리에 모아 사회과학 연구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구는 유네스코가 유일하다고 강조함. 나아가 MOST 사업 차기 2개년 우선순위중 하나가 MOST National Liaison Committee 강화임을 소개

인문사회과학사업 우선순위 3 “철학, 인문학, 인권” 관련 네덜란드는 문명간 대화 촉진이 유네스코가 독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사업 강화를 요청함. 중국은 중국문명에서 조화가 강조됨을 소개하고 철학대화에서 동양철학의 기여를 희망. 영국은 철학의 날 기념 활동이 유네스코가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으며, 독일은 차별반대도시연합 사업을 높이 평가함. 폴란드는 기초학문, 특히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사학자들의 대화를 제안. 한국은 철학대화가 추상적인 주제가 아닌 종교간, 민족간 분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것과 평화의 문화에서 철학대화뿐만 아니라 역사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강조

-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는 2008-2009년 사업계획으로 집행이사회 초안작성그룹의 수정안인 34 C/6Add를 채택함.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MOST 사업 강화를 위해 MOST 학술이사회 및 사회발전 장관과 협력하여 MOST 사업계획을 개발한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하자 멕시코, 브라질, 쿠바 등 중남미그룹이 긴 내용의 수정안을 구두로 제안하여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인도가 그와 같은 사업수행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제안을 현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자 네덜란드가 수정안을 철회함

4) 의제 5.5 여성, 스포츠, 체육에 관한 유네스코 관측소 설립(그리스)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됨

5) 의제 5.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인권교육연구소 설립

31개국이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여, 원안대로 179차 집행이사회가 동 연구소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카테고리 II 기관 설립을 결정하도록 의결함

6) 의제 5.16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9개국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사무국이 제출한 사업계획안 승인을 놓고 오랜시간 대치함.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은 사업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초안임을 강조하며 179차 집행이사회에 승인을 위임토록 주장함. 브라질, 이집트, 프랑스, 콜롬비아 등은 동 사업이 2007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34차 총회가 사업 실행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 이에 의장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단일한 수정안을 제시토록 함. 결국 34차 총회에 접수된 사업계획안을 179, 180차 집행위가 검토하고 향후 35차 총회에 기념사업에 대해 보고토록 하되, 사업 시행일 2007년 12월 10일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함



마. 문화 분과위원회 (CLT)

1) 의장단

- a. 의장 Mr Javad Zarif (이란)
- b. 부의장 Mr Günter Overfeld (독일)
Ms Katalin Bogyay (헝가리)
Ms Alissandra Cummins (바베이도스)
Ms Neo Adjei-Asafo (보스와나)
- c. 보고자: Mr Mourad Betrouni (알제리)

2) 의제 3.1. 2008-2013 중기전략

회원국들은 34 C/11(34 C/4에 대한 집행이사회 권고안)에 명기된 문화관련 3가지 전략사업목표(SPO, Strategic Programme Objectives),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강화, 사회 융합 및 조화를 위한 문화간 대화의 중요성 강조,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우리측은 차기 중기전략을 지지함을 밝히고, 문화다양성에 있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① 2010년 2차 세계예술교육총회관련 사무국이 이에 대한 구체 계획을 마련할 것과 ② 비정규예산 모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③ 2차 세계예술교육총회 개최년도관련 34 C/11에 오기된 2009년을 2010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함. (별첨 발언문 1 참조)
- 사무국(Riviere 문화담당 사무총장보)는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2차 예술교육총회 개최를 위해 한국이 유네스코에 지원(assistance)을 요청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고, 사무국에서는 이미 이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34 C/4에 개최년도를 수정하겠다고 함.
- 예술교육관련, 독일이 우리 정부의 2차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레바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함. 옹저버로 참여한 IMC(Music council)이 예술교육 커리큘럼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함.
-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문화다양성증진을 강조하고, 코트디부와르, 중국, 일본 등이 문화유산보호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말리, 아이슬란드, 모로코 등은 언어다양성 증진에 대해, 자메이카, 폴란드 등은 대중문화산업, 창조산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3) 의제 4.2. 2008-2009년 사업 및 예산(34 C/5) 심의

34 C/5에 포함될 문화관련 6가지 주요사업(MLA, Mainline actions), 즉, 세계유산

보호협약 이행을 통한 부동(immovable) 문화재 보호, 무형유산협약 이행을 통한 무형유산보호, 불법거래방지 등 문화재 보호 및 박물관 개발, 2005년 협약 이행을 통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및 문화·창조 산업 개발, 문화간 대화와 평화에 대한 이해 및 개발 증진, 국가 정책에서의 문화다양성, 문화간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간의 연계 강화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지지 발언을 함.

- 사무국은 유네스코의 문화관련 주요 3개 협약(2001년, 2003년, 2005년 협약)의 조화로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문화사업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 및 아프리카라는 유네스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① 34 C/DR 12

이란은 자국이 추진중인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무형유산보호 연구센터”를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염두에 두고, 34 C/5 문화부분 결의안 (ii)항 마지막 구절에 “소지역 및 지역 통합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 증진..”을 삽입하는 안을 제안

- 우리측은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 추진에 이란측이 제안한 문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무형유산보호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측 제안을 지지함.
- 이란의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무형유산보호 연구센터”는 동 결의안과 관계 없이 집행이사회 심의 등 별도의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절차를 밟기로 함.

② 34 C/DR 44

케냐가 동아프리카 지역의 박물관 설립 및 개발을 염두에 두고, 34 C/5 문화부분 결의안 (iii)항에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체 문화 박물관 창설 및 개발을 포함하여..”라는 문구 삽입을 제안함.

- 사무국이 동 취지의 사업은 이미 사업안에 포함되었으며, 명시적으로 문구를 삽입한다면 아프리카관련 부분에 포함시키거나, Participation programme 또는 비정규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따르기로 결정함.

③ 34 C/DR 22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베넵 등이 유네스코가 33차 총회에서 결정된 불법 문화재 반환관련 결정에 충실하지 않고, 디지털화 등을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문화재 접근이 문화재 반환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수용하려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 결의안을 제안함.

- 사무국은 "Virtual access"가 불법문화재 반환을 대체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설명하고, 제안국들과 협의하여 “디지털화가 1970년 협약의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 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위원회가 이를 채택함.
- 우리측은 제안국들의 우려에는 공감하나, 사무국측의 입장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무국의 정책이 제안국들의 우려와 사실상 다른 점을 고려, 디지털화의 문화재 반환 대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불법문화재 반환문제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역할 및 불법문화재반환촉진위원회(ICPRCP)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CPRCP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내년 ICPRCP 특별회의를 유치할 예정임을 밝힘. (별첨 발언문 3 참조)

④ 34 C/DR 28

쿠바가 제6차 문화 및 개발 국제회의를 염두에 두고,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증진 등을 위한 지역차원의 활동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34 C/5 문화부문 결의안 (v)에 삽입할 것을 제안함.

- 쿠바가 제안한 문구는 그대로 두되 제6차 문화 및 개발 국제회의는 비정규예산을 모금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

⑤ 34 C/DR 42

도미니카 공화국이 문화부문에서의 남남협력 및 북남남 협력을 위한 역량강화를 34 C/5 문화부문 결의안(v)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사무국이 동 사업은 이미 사업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에 따라 동 문구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비정규예산을 모금하기로 함.

4) 의제 5.6. 문화관련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크루아티아의 수중 고고학 연구센터, 중국의 아태지역 세계유산 교육·연구 센터, 나이지리아의 아프리카 문화 및 국제이해 연구소 설립을 환영하고,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센터로 설립하기로 함.

- 우리측은 3개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을 지지하면서, 특히 중국의 세계유산 교육연구센터가 아태지역의 세계유산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요지로 발언함.

5) 의제 8.1. 문화재 밀거래 방지 및 개도국 박물관 개발/1970년 문화재 불법이전 및 소유권 양도 금지협약 보고서 검토

2차세계대전시 이전된 문화재관련 원칙 선언 초안은 177차 집행이사회 의 권고에 따라 금번 34차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함.

- 우리측은 1970년 문화재 불법이전 및 소유권 양도 금지협약 보고서 검토관련 결의안(34 C/55)를 지지하고, 상당수의 문화재가 밀거래, 불법이전 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재의 밀거래 방지 및 반환에 있어 유네스코의 역할이 정부간위원회(ICPRCP)를 통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2008년 ICPRCP 특별회의 개최가 정부간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함. (별첨 발언문 5 참조)

- 많은 회원국들이 개도국 문화재 보존에 있어 박물관 설립 및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무국은 virtual access 추진이 불법문화재 반환을 대체하고 있다는 오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유네스코 정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

6) 의제 5.13. 2010년 문화 친선의 해 선포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세계의 안정, 안보, 번영을 위한 문화·문명간 조화를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함.

- 유엔 차원에서 특정 연도를 특별한 목적을 기념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를 결정할 수 없고 유엔총회가 동 권한을 보유하므로, 유엔총회가 2010년을 문화친선의 해로 선포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7) 의제 5.3. 예루살렘 및 아랍점령지역관련 33 C/Resolution 50, 70 이행 문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토론없이 이해당사국(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의 consensus로 제안된 결의안을 채택함.



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 (CI)

1) 의장단 선출

- a. 의장: Mr. Frédéric Rieh(스위스)
- b. 부의장: Mr. José-Antonio Martin Pulido (쿠바)
Mr. Mohamed Abd El Hamid Shoera (이집트)
Mr. Ezekiel Mutua (케냐)
Mr. Ludovit Molnar (슬로바키아)
- c. 보고자: Mr. Laurence Zwimpfer (뉴질랜드)

2) 의제 3.1 중기전략(34C/4) 검토 및 채택

38개국 대표와 IFIP 및 Internet Society 등 2개 국제 NGO 대표의 발언이 있었음.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중기전략과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의 권고(34C/11)에서 밝힌 유네스코의 새로운 임무(mission statement), 5개의 최우선사업(overarching objectives), 14개의 전략사업목표(strategic programme objectives) 및 ‘아프리카’와 ‘양성평등’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5번째 최우선목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포용적인 지식사회 건설” 설정의 타당성과 이번 중기전략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제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중기전략을 통해 WSIS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을 주문하였고,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아프리카’와 ‘양성평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에 지지를 표명하였음. 중국은 34C/4가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조화(harmony)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IFAP 사업의 증진 필요성과 이를 통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정보유산의 보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민간 섹터와의 협력 강조하였음. 요르단은 개도국의 낮은 인터넷 접근성을 지적하면서 모바일 텔레콤을 활용한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유네스코가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고, 노르웨이는 정보 기술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언급하였음. 폴란드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 정보 유산의 보존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IFAP 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 다만 사업의 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정의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음. 베트남은 2008년 자국에서 아시아지역 최초의 정보윤리 지역회의를 개최함을 소개하였고, 볼리비아는 커뮤니케이션이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전달자임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달.공유하는 데 유네스코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였음. 필리핀은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의 협력

을 강조하였고, 호주는 저널리스트의 살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들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아울러 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과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및 미디어전문가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캐나다는 유엔 개혁에 유네스코가 기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의 초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음. 나이지리아는 유네스코(본부, 지역사무소)와 회원국 국가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주문하였고, 이스라엘은 정보문해, 정보의 보편적 접근과 이에 필요한 기술의 활용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도미니카공화국은 정보사회에서 윤리적.법적인 측면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유네스코가 윤리적 차원에 사업의 초점을 좀더 강조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수단은 미디어와 언론분야의 유네스코 체어(UNESCO Chair)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3) 의제 4.2 2008-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34C/5) 심의 및 승인: 주요사업 V

36개국 대표와 IFLA 및 IFTC 대표의 발언이 있었음. 회원국들은 대체로 사무국에서 집행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제출한 34C/5안 - 2개의 분야별 우선과제(Biennial sectoral priorities)과 이에 따른 4개의 주요활동목표(Main line of actions) - 을 지지하였고, 인도, 쿠바, 이집트가 제출한 수정결의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채택하였음. 아울러 주요사업 V(정보.커뮤니케이션)의 예산으로 미화 3,191,900 (사업비 미화 12,682,900, 인건비 미화 19,237,000)을 승인할 것을 총회에 권고하고 하였음.

- **분야별 우선과제(biennial sectoral priorities)**
 1.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보편적 정보 접근의 촉진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적 적용 강화
- **주요활동목표(Main line of actions)**
 1.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위한 환경 장려
 2. 보편적 정보 접근과 정보기반 개발 촉진
 3.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 개발과 공동체 미디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동체 참여 증진
 4. 분쟁 지역 및 분쟁후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이해와 평화, 화해 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의 역할 강화

- 한국은 발언을 통해 35C/5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특히 주요사업방향이 사무국의 원안 6개에서 4개로 축소된 것에 대해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사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음. 아울러 ICT가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WSIS의 행동노선 C8인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언어다양성과 지역콘텐츠”가 C/5에 언급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34C/4와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34C/5의 전략목표 12 제목에 “knowledge”라는 단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북한은 ICT가 MDG 달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간격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고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인 표현의 자유와 독립미디어 및 기타 중요 문제들도 개도국 정보기반(inforstructure) 구축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미국은 사무국에서 회원국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한 데 감사하면서 언론자유, 저널리스트 안정,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World Digital Library 지지 의사를 밝혔음. 뉴질랜드는 인터넷 안전 문제와 디지털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독일은 정보문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IFAP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이란은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디어가 다양한 문화간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함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WSIS 행동노선 10인 ‘정보윤리’와 문화다양성 중요성 강조하였음.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에 유네스코가 특별한 노력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고, 탄자니아는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마이크로소프트 협력을 예로 들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국가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스웨덴은 사업의 초점이 좀더 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캐나다는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스위스는 의제 관련 문서들이 수정본을 비롯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복잡하다고 비판하면서 유네스코 전체 예산이 명목상으로 증가함에도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 예산은 명목상으로도 축소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5% 줄어들었음을 지적하였음. 프랑스는 평가와 분산화 강조하고 유네스코가 회원국들에게 예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미디어 전문가 훈련의 중요성도 아울러 지적하였음. 네덜란드는 로컬미디어의 중요성을, 덴마크는 최우선목표들이 부문간협력의 틀에서 추진될 것을 요구하였음. 기타 살바도르, 오스트리아, 도미니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베냉, 우간다, 토고, 가봉, 러시아 등이 발언하였음.

수정 결의안(DR)

● 34C/DR.23

- 인도가 제출하고 베냉, 칠레, 모로코, 이라크가 지지
- 내용: 표현의 자유와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해 방송사업자권리보호협약을 위한 WIPO 협회에 유네스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문구를 단락 (a)(i)에 추가
- 결의: 채택

- 34C/DR.32
 - 쿠바가 제출
 - 내용: 미디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증진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의 국가별 사업추진에서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저널리스트의 윤리가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는 문구를 (a)(vi)에 추가
 - 결론: 국가 주권은 문제는 굳이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전제이므로 채택않고, 다만 저널리스트의 윤리기준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만 삽입하기로 결의
- 34C/DR.33
 - 쿠바가 제출
 - 내용: 저널리스트 탄압과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impunity) 사례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으는 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안과 이에 소요되는 미화 45,000 요구
 - 결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기존의 활동과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나, 저널리스트의 생명과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탄압행위에도 처벌받지 않는 것(impunity)에 대한 환기심은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expecially with a view to impunity”를 (a)(i)에 추가 삽입키로 결의
- 34C/DR.34
 - 쿠바가 제출
 - 내용: 미디어의 사적(私的) 소유 집중이 보편적 정보 접근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구를 (a)(ii)에 추가
 - 결론: 사적 소유 집중만 명시하면 국가에 의한 미디어 소유 집중의 폐해는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적”이라는 표현은 빼고 미디어의 소유 집중에 따른 위험을 명시하기로 결의
- 34C/DR.53
 - 이집트가 제출
 - 내용: 단락 (a)(ii)에 회원국의 국가정보정책 입안시 특별히 IFAP의 틀을 활용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
 - 결론: 채택
- 34C/DR.14
 - 이란이 제출
 - 내용: 서아시아 국가들간의 가상대학 네트워크 설립과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정규예산 미화 6만 달러 배정을 제안
 - 결론: 총회가 사무총장에게 비정규예산 확보 노력을 요청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채택하지 않음
- 34C/DR.13
 - 이란이 제출
 - 내용: 단락(a)(ii)에 아날로그 및 디지털 문서 외에 수고(手稿, manuscripts)의 보존도 명시
 - 결론: 내용이 이미 사업에 반영이 되어 채택 않음

4) 의제 5.6 유네스코 카테고리 센터 II (바레인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 지역센터)

바레인 교육장관 Mr. Majid Bin Ali Al Nuaimi의 의제 설명과 22개국 대표의 발언이 있었음.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하는 발언. 센터 설립 협정 체결토록 총회에 권고기로 결의함.

- 동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전적으로 바레인정부가 부담하므로 유네스코의 정규예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아프가니스탄 대표의 첫 번째 지지 발언이 있는 후, 예멘, 알제리, 쿠웨이트, 체코, 수단, 탄자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필리핀, 이집트, 오만, 레바논, 타지키스탄, 시리아, 카타르, 카메룬,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아랍권 국가들과 일부 아시아, 유럽 국가들이 전폭적인 지지 발언을 하였음. 유일하게 덴마크가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카테고리II 기관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카테고리 II 기관의 무분별한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음.

5) 의제 8.2 다언어사용증진과 사이버스페이스의 보편적인 접근에 관한 권고 관련 회원국 이행 사항 보고

12개국 대표가 대체로 동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무국이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확대 노력과 함께 제출된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발언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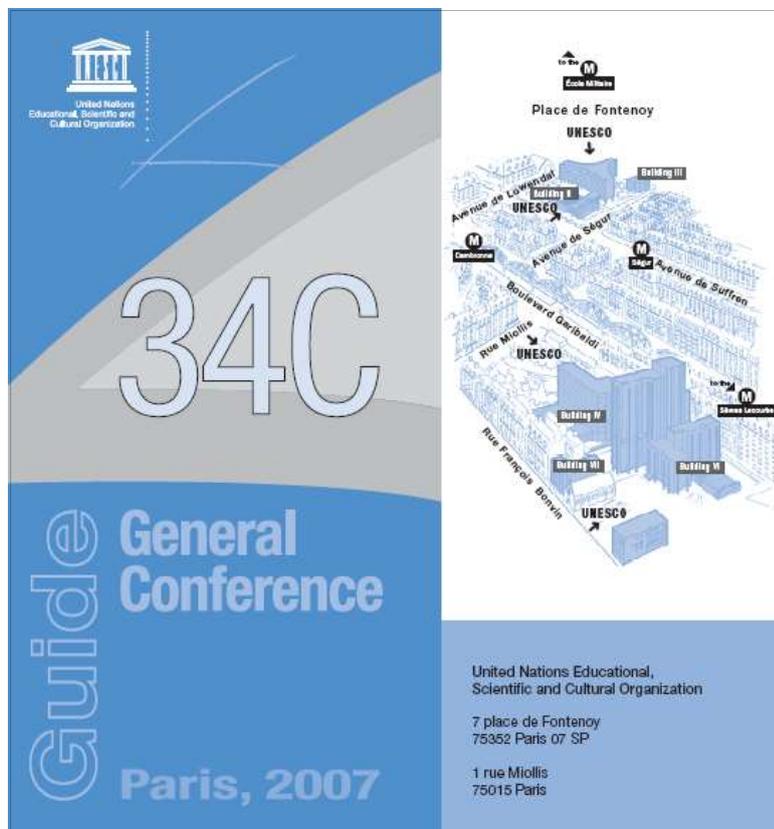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호주, 미국,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등은 대체로 다언어사용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고, 프랑스는 회원국이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독일은 이행보고서 제출 국가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음.

6) 의제 3.2 2010-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35C/5) 준비

IFLA, IASA, IFOR, WFTU 등 4개 국제 NGO를 포함해 12명의 대표가 발언함. 34C/5와의 연속성 및 부문간협력을 강조하는 발언과 표현과 출판의 자유, 윤리 문제의 중요성, WSIS의 제네바 행동계획, 미디어의 문화다양성, 다언어사용, 사회발전과 지식의 역할, 지식사회 건설과 ICT의 활용, IFAP의 적극적 역할, 아프리카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바베이도스 등은 부문간협력이 35C/5에는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뉴질랜드는 e-learning에 있어서 ICT 활용을, 독일은 언론자유와 민주적 참여 및 저널리스트 안정 등을 중요하게 지적하면서 관련

task force 구성을 제안했고, 호주는 다언어사용과 문화.언어다양성을 ICT의 중요 요소로 지적한 데 이어 디지털정보의 보존과 비용 문제를 강조함.



▲ 유네스코 사무국이 배포한 제34차 유네스코 총회 안내책자

사. 행정 분과위원회 (ADM)

1) 의장단선출

- a. 의장: Mr. Olabiyi Babalola Joseph Yaï (베냉)
- b. 부의장: Mr. Kamel Boughaba (알제리)
Ms. Dominique Levasseur (캐나다)
Mr. Alfredo Miranda (멕시코)
Ms. Marjutka Hafner (슬로베니아)
- c. 서기: Mr. Arief Rachman (인도네시아)

- 유네스코의 예산 편성과 지출, 재정, 분담금, 직원 정책, 연금 등을 다루는 행정분과는 10월 17일(화)에 시작하여 10월 20일 (토) 저녁 8시 까지 총 8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 토의는 3분간으로 정했으나 행정분과의 안건이 재정 등 전문적인 분야이어서 참석자와 발언자가 다른 분과에 비해 적어 나중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발언하기도 하고 의장이 발언을 할 것을 수차 요청하기도 함.
- 총회 행정 분과에서 다루어지는 예산, 재정 및 행정 안건은 대부분 집행이사회 재정 행정 분과(Financial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FA)에서 이미 논의된 안건이 상정됨. 따라서 토의도 집행이사회 FA 논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며, 토의를 주도하는 국가들도 모두 집행이사국으로서 특히 FA의 전문가 그룹(Group of Expert)에 속한 나라들임.

2) 의제 4.4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의 예산 상한(budget ceiling) 채택

첫 안건은 사무국에서 제출한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의 예산 상한(budget ceiling) 채택에 관한 DR 건으로, 이 DR에서 "provisonal"이란 단어를 빼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6억3천1백만불의 예산 상한을 승인함.

3) 의제 1.3 분담금을 내지 않은 국가들의 투표권 박탈 문제

두 번째 안건은 의제 1.3 분담금을 내지 않아 투표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라크, 소말리아 등 18개 회원국에 대한 안건으로 스웨덴, 파키스탄, 모로코, 우크라이나, 칠레, 알제리, 베닌, 베네수엘라 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여 10월 20일(토)까지 검토 의견을 행정분과 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 이 안건은 10월 20일에 다룬 <의제 11.6. 회원국 분담금 징수> 안건에서 Working Group 대표인 스웨덴 대표가 18개국 중 아르헨티나, 카포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감비아, 이라크, 파라과이, 사오 토메 프린시페로부터 지불 지연에 대한 사유를 받았으며, 이중 도미니카공화국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액수를 이미 납부했고, 아르헨티나, 이라크, 파라과이, 사오 토메 프린시페는 납부 지연 사유가 인정되어 이번 34차 총회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건의하나, 카포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감비아, 소말리아, 지부티는 투표권 인정이 불가하다고 보고하고 이 내용을 담은 34C/12 결의안을 배포함.

- 지부티 대표는 10월 19일 US\$150,000을 유네스코로 송금하여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유네스코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증빙서류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음. 이에 대해 스웨덴 대표는 지부티의 납부 예정 금액이 투표권에 필요한 액수에 못 미친다고 설명함.
-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이라며 유네스코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르웨이, 세인트루시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국가들은 유네스코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Working Group의 결정을 그대로 총회 본회의(Plenary session)에 보내자고 주장함.
- 이 안건은 10월 20일(토) 오후 회의에서 Working Group이 지부티의 투표권을 인정기로 보고함에 따라, 이러한 수정 내용을 담은 34C/12 결의안을 행정분과에서 채택하고 이를 총회 본회의로 송부하는 것으로 결론지음.
 ※ 본회의에서 지부티와 카포베르데는 구제되고, 최종적으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감비아, 소말리아가 투표권이 박탈됨.

4) 의제 11.4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유네스코 재정 상황 보고

세번째 안건은 의제 11.4 유네스코 재정 상황 보고에 관한 건으로 논의는 주로 unpaid contribution과 3백7십만불에 달하는 전회기 unspent balance에 집중되었고,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수정 없이 DR을 채택함

5) 의제 11.7 운용자금기금(Working Capital Fund)

오후 첫 번째 안건인 의제 11.7 운용자금기금(Working Capital Fund)은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늦어짐에 따라 유네스코가 분담금이 들어올 때까지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운용자금기금(Working Capital Fund)의 규모를 4.59%라는 퍼센티지 대신 2천9백만불이란 액수로 표기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 채택함.

6) 의제 11.8 국제공공회계표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추진에 관한 권고

유엔기구는 1993년부터 유엔이 개발한 UN System Accounting Standards (UNSAS)를 회계 표준으로 사용해왔으나, 2005년 유엔 High Level Committee on Management에서 '국제공공회계표준(IPSAS)'을 2010년1월1일까지 전 유엔 기구가 도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ICAO, WFP, WHO가 2008년 1월 1일까지 이를 도입하고, 유네스코도 2010년 1월 1일까지 도입하기 위해 34C/5에 1백만 불을 반영하였다고 밝힘.

- “제180차 집행위와 제35차 총회에 구체적 계획서와 일정표 등을 함께 담은 예비 제안을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일본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채택함.

7) 의제 11.13 의료보험기금(Medical Benefits Fund)의 현황과 2008-2009 기간 중 기금운영이사회에 참여할 회원국 대표 임명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의료보험기금(Medical Benefits Fund)에 대한 사무국의 현황 보고를 듣고, 유네스코가 부담하는 의료보험기금 비율을 50%에서 60%로 늘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사무국은 예산부담을 이유로 2010-2011 회기에 고려하겠다고 답변하고, 라오스와 핀란드를 기금운영이사회에 참여할 옵저버(observer)로 지정한 후 이 안건 DR을 채택함.

8) 의제 4.1. 예산 준비 방법과 2008-2009 예산 추정 및 예산 기법

10월 18일 오전에 개최된 회의에서 사무국에서 2008-2009년도 예산 준비 방법과 예산 추정 및 예산 기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이번 예산은 지난 회기에 비해 2천1백만불이 증액(3.4%)된 예산이며, 예산 기법으로는 (1) constant dollar principle(US \$1=Euro 0.869) (2) 예상되는 비용 증가(Anticipated cost increases)를 Part IV에 따로 계상 (3) 직원 이직과 채용 지연을 3%의 vacancy rate으로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 (4) 외부재원 반영 (5) 사업비에 직원 경비와 간접경비 반영 등이라고 설명함.

- 일본, 영국, 나이지리아 등은 <Part IV Anticipated Cost Increase> 예산을 이렇게 따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지함.
- 멕시코는 2008-2009 회기에 증가된 예산을 직원들의 여행 경비보다는 유네스코 사업 경비 증액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제 3.2 2010-2011 사업 및 예산안 준비 의제가 행정분과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제 4.1에 관한 결의안 중 para 2 - 2010~2011예산 편성에 기존과 같은 예산기법을 적용한다 - 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함.
- 네덜란드, 영국도 멕시코 발언을 지지하며 para 2 삭제를 주장한 반면, 세인트 루시아, 그라나다, 나이지리아는 삭제를 반대하고 이 논의를 연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결국 사무국이 안건 논의 연기를 받아들임.

- <의제 4.1. 예산 준비 방법과 2008-2009 예산 추정 및 예산 기법> 안건은 10월 20일 오후 5시경 <의제 3.2. 2010~2011 사업 및 예산안 준비>에 관한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한스 도빌(Hans D'Oville) 전략기획 사무총장보(ADG for BSP)가 이 안건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끝에 결국 원안대로 채택함.

9) 의제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이 안건에 대해서 행정분과에서는 예산 측면만 다루기로 함. 예산국장은 34C/5 2nd version Corrigendum이 최종 문서로서, (1) Major Program(MP)과 Main Line of Action(MLA)의 두 단계로 간소화 하고 (2) MLA를 줄였으며 (3) MLA에 직원 경비를 명기하고 (3)Intersectoral Platforms를 만들었다고 설명함.

- 사무국에서 6억3천1백만불 예산으로는 직원 수가 1925명 (field - 673명)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설명하고, 이는 본부 직원을 375명 줄이는 수치라고 함. 토의는 (1) 전년 회기보다 늘어난 2천1백만불의 예산을 사업비와 인건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2) 스웨덴 수정안의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됨.
- 전년 회기보다 늘어난 2천1백만불의 예산을 사업비와 인건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은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줄여 사업비를 늘이자고 주장하였으며, 멕시코는 직원 출장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반대함, 이에 대해 사무국은 직원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 스웨덴이 제안하고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co-sponsor한 예산 수정안(34C/DR.18)이 가장 중요한 토의 안건이었음.

34C/DR.18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수정안)

- 제안: 스웨덴 (공동발의-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 주요내용: 감액 (1) 집행위원회 경비 \$300,00

(2) fellowship programm \$1,870,900

(3) anticipated and foresight \$1,544,300

증액 (1) 국제교육기획연구소(IIEP)\$1,000,000

(2)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IL) \$1,000,000

(3) 아프리카역량개발연구소(IICBA) \$1,626,200

- Fellowship 사업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등 아랍국가와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등 남미국가, 그리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가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

주, 캐나다 등 유럽 및 선진 국가들은 스웨덴안 지지함. 특히 네덜란드는 fellowship 사업을 이러한 교육연구소를 이관하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디오피아는 자국에 소재한 아프리카역량개발연구소(IICBA) 예산 증액에 찬성하였으며, 우간다, 남아공, 미국, 프랑스가 지지함.
- 집행이사회 예산 삭감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중국 등은 집행이사회 예산 삭감을 반대함. 프랑스는 스웨덴 안을 거부한 DG의 입장을 지지함.
- 일본도 스웨덴 DR 제안 배경을 이해하지만 집행이사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이사회의 약화를 초래하는 스웨덴안에 반대한다고 밝힘.
- 미국은 아프리카역량개발연구소(IICBA)의 강화를 지지하고, fellowship 사업은 다른 사업과 trade off가 가능하며,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인가를 정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카테고리 II 기관이 너무 많다고 발언함.
- 중국은 2천1백만불을 인건비에 배정하기 보다는 개도국 지원사업에 사용하자고 주장하였으며, fellowship 사업이 개도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 남남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삭감을 반대함.
- anticipated and foresight 사업은 아르헨티나, 말리, 이집트 등이 유네스코가 유엔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참여사업(PP) 예산 삭감(약 1백8십만불)에 대해 부르키나 파소, 멕시코등이 기존 예산 수준 유지를 주장함.
- 사무국은 anticipated and foresight 사업이 유네스코의 주요한 기능인 laboratory of idea의 기능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고, Fellowship은 오래된 성공적인 사업으로서 유네스코의 visibility를 높여주고 있으며, 집행이사회의 경비는 6억3천1백만불 시나리오에 이미 예산이 삭감되어 반영되었으며, 지금도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오히려 예산 증액의 압력이 있음을 밝히고, 교육분야 3개연구소의 예산 증액은 교육 예산 내에서 하면 된다고 설명함. 또한 스웨덴 DR 중 행정분과에서는 집행이사회 예산 3십만불의 삭감만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함.
- 결국 스웨덴 DR에 대해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전체 혹은 부분별로 반대하고, 선진국은 대체로 찬성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역별로 한 나라씩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논의 결과를 다시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음.
- 10월 20일 오후에 상정된 DR은 Part I과 Part III에서 5십만불을 삭감하기로 하고, 이를 교육, 과학, PRX,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동회의(Joint meeting of Commissions)에서 논의토록 하는 내용으로 채택함.

10) 의제 11.3 외부감사 보고

외부감사보고를 청취한 후 “180차 집행이사회에 부채 등에 대해 보고”토록 하

는 영국의 새로운 조항(para. 7)을 받아들여서 채택함

11) 의제 11.2 외부재원기금의 향상된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 - 사무총장 보고

사무국에서 배경설명으로 2002년 UN의 Joint Inspection Unit(JIU)에서 UN기관마다 Program support cost가 달라 문제라고 지적하고 UN 기관들간의 PSC 단일화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외부재원을 정규사업의 맥락 속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연말쯤 additional program을 제시하겠다고 함.

- 일본은 지난 회기동안 유네스코가 2천5백만불의 special account 모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사례를 들면서 donor의 priority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program support cost 로 13%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간접비가 드는지 유네스코가 투명하게 비용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 세인트 루시아, 충분한 정보 요청함.
- 노르웨이는 외부재원이 정규예산보다 많은 것은 새로운 도전이며, self-benefiting fund 또한 다른 외부재원과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발언함.
- 브라질은 self-benefiting fund가 유네스코에도 유익했고 south-south cooperation이라고 발언함.
- 한국은 외부재원과 정규예산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유네스코 정책을 지지하며, 특히 최근 한국의 ODA 증가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유네스코와 한국간에 외부재원 협의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 일본의 “self-benefiting fund 또한 다른 외부재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정 제안과 노르웨이의 “180차, 182차 집행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채택함

12) 의제 11.14 유네스코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총장/청사위원회 보고

Headquarters Committee 위원장과 사무국의 청사 관리와 개보수 사업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토의에서 회원국들은 최근 발생한 host country(프랑스)의 건축경비 증액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며, 추가 자금 소요를 위해 2004-2005 회기 동안 남은 자금(\$3,735,000)을 가져다 쓸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요청함.

- “사무총장에게 향후 지출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멕시코의 수정안에 대해 나이지리아, 우간다, 프랑스 등이 반대하여 원안대로 DR 채택함.

13) 의제 11.11 직원의 지역 배분 및 양성 균형에 관한사무총장 보고

나이지리아가 DR의 pagr 1. - 높은 수준의 성실성, 효율성, 전문성 - 삭제를 주장했으나 그대로 두기로 하였으며, 멕시코의 “중간 및 상위 직급에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배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총원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이 DR 채택함.

- 일본은 post-weighing system 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함.
- 아국은 유네스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under-represented 국가가 31%이고, non-represented 국가가 16%인 현실이 계속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남미 지역 출신의 총원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아태지역과 남미지역 출신의 직원 총원을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14) 의제 11.9 직원 규정

의제 11.10 직원 급여

의제 11.12 유엔 공동 직원 연금 및 2008-2009유네스코 직원연금위원회 회원국 대표 임명 (동시 상정)

<의제 11.9 직원 규정>과 관련하여 세인트 루시아는 “직원이 채용된 후 제2공용어를 공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하자”는 34C/COM.ADM/DR1을 제출하였음. 이에 대해 멕시코, 러시아 등이 지지하고, 미국은 “충분한 지식”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였으나 결국 원안 그대로 채택됨

- 동성간 결혼(same sex marriages), 복수의 배우자와의 결혼(multi-spouses marriages), legally concluded partnership, union 등 직원의 결혼과 배우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유네스코는 ILO Administrative Tribunal(ILOAT) Decision에 따라 1명의 배우자만 인정하고, 동성간 결혼은 결혼식을 한 나라의 법에 따라 유효성을 인정하며, partnership도 그 국가가 인정하면 유네스코에서도 인정받는다고 함.
- 유네스코 직원연금위원회 회원국 대표로 말레이시아, 페루, 미국을, 교체대표로 남아공, 불가리아, 스페인을 임명키로 함.

15) 의제 11.6 회원국 분담금 징수

의제 1.3 분담금을 내지 않은 국가들의 투표권 박탈 문제

의제 9.2 싱가포르 분담금 사용에 관한 사무총장 제안 (동시 상정)

세 안건이 동시 상정되었으나 주로 다루어진 안건은 <의제 1.3. 분담금을 내지 않은 국가들의 투표권 박탈 문제>에 관한 것으로 Working Group 대표인 스웨덴 대표가 18개국 중 아르헨티나, 카포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감비아, 이라크, 파라과이, 사오 토메 프린시페로부터 지불 지연에 대한 사유를 받았으며, 이중 도미니카공화국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액수를 이미 납부했고, 아르헨티나, 이라크, 파라과이, 사오 토메 프린시페는 납부 지연 사유가 인정되어 이번 34차 총회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건의하나, 카포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감비아, 소말리아, 지부티는 투표권 인정이 불가하다고 보고하고 이 내용을 담은 34C/12 결의안을 배포하였으나, 지부티 대표가 10월 19일 US\$150,000을 유네스코로 송금하여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유네스코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증빙서류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여 토의가 계속된 후, 결국 Working Group이 지부티의 투표권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이러한 수정 내용을 담은 34C/12 결의안을 행정분과에서 채택하고 이를 총회 본회의로 송부하는 것으로 결론지음. 다른 두 안건은 토의 없이 채택함.

16) 의제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에 관한 집행이사회 권고

34C/5에 대한 집행이사회의 권고를 담은 34C/6 Add를 별 반대 의견없이 채택함.

17) 의제 3.2. 2010-2011 사업 및 예산안 준비 보고 (34C/7)

한스 도빌(Hans D'Oville) 전략기획 사무총장보(ADG for BSP)가 "open design"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이 안건을 설명한데 대해, 멕시코는 이 문서가 토의 문서로는 부족하다고 점을 지적하였고, 뉴질랜드와 독일은 sunset clause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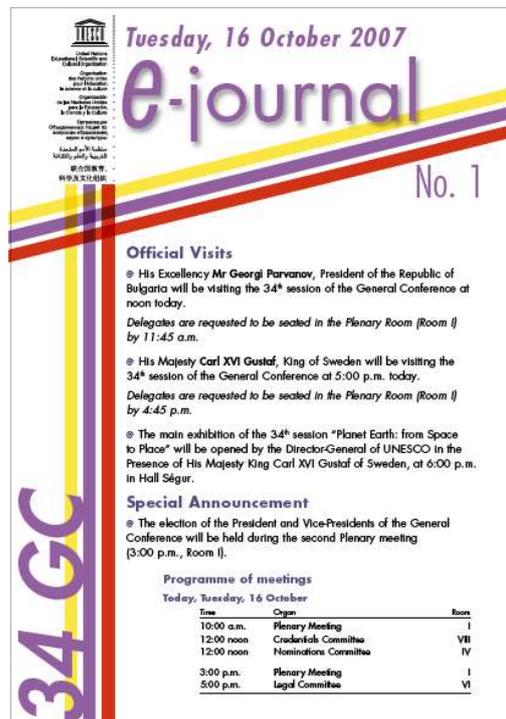
- 이 보고와 토의 후 <의제 4.1. 예산 준비 방법과 2008-2009 예산 추정 및 예산 기법> 의 DR(34C/60)을 원안대로 채택함.

18) 의제 6.3 카테고리 2 기관에 대한 지침과 기준의 추진

한스 도빌은 카테고리 2 기관은 유네스코 활동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며, 향후 취소 협정(cancel agreement)도 필요하다고 설명함.

- 일본은 카테고리 2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DR을 제출
- 180차 집행이사회에 카테고리 2 기관에 대한 종합적 전략 보고

- 유네스코의 중기전략과 C/5에 맞는 카테고리 2 센터 전략의 수립
-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한 카테고리 2 기관의 질 향상
- 유네스코의 재정 및 인적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한국은 카테고리 2 센터가 늘어나는 것은 지구화 시대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유네스코의 자연적인 진화라고 언급하고, 유네스코와 회원국간 역할 분담을 통해 더 나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아태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다문화교육과 평화교육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유네스코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함.
- 일본의 DR 중 특히 유네스코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말자는 조항에 대해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우간다 등이 삭제를 주장하고, 영국, 독일, 세인트루시아, 라트비아, 프랑스, 이태리 등이 존치를 주장하여 대립하다가 “유네스코의 재정적, 인적 자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또 덜 영향을 주는 입장에서 직접, 간접 경비를 확인하자”는 문구로 수정하여 채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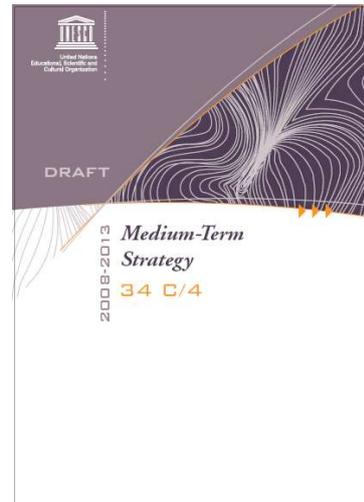
▲ 제34차 총회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발행된 e-journal 저널. 총 16회 발행됐다.

IV. 주요 결의 내용

가. 중기전략 및 예산 채택

1) 2008-2013 중기전략안 채택

34C/4는 아프리카, 양성평등을 최우선 관심을 바탕으로 5개의 우선 사업목적과 12개의 전략목표를 두었음. 35C/5, 36C/5, 37C/5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 총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가변전략(Rolling Strategy)임.



2) 2008-2009 사업 및 예산 채택

제34차 유네스코 총회는 전 사업회기 대비 3.4%가 증가한 미화 6억3천1백만 달러를 2008-2009년도 사업 정규예산으로 채택함. 이번 총회가 채택한 사업 및 예산의 사업 영역별 우선사업으로는, ‘모두를 위한 교육사업’, ‘자원관리 역량강화 사업’, ‘과학기술 윤리사업’,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그리고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업’등이 정해짐. 사업 예산의 배분을 보면, 교육사업에 전체 정규예산의 17%에 해당하는 1억8백만 달러가 할당됐고, 자연과학사업에 5천6백만 달러, 문화사업에 5천1백만 달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사업에 3천2백만 달러, 인문사회과학사업에 2천9백만 달러가 각각 배정됨.

나. 집행이사국 및 정부간 위원회 이사국 선출

이번 총회 기간 중에는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선출을 포함 총 17개의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됨. 한국은 지난 2003년 말에 임기가 끝났던 집행이사국에 다시 진출하여 향후 유네스코 외교에 기반을 마련함. 2007년 말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인간과 생물권사업 국제조정위원회(MAB)와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IGBC)에서 이사국으로 재 선출됨. 한국은 현재 이들 2개 정부간위원회 외에도 세계유산위원회(WHC), 국제교육국(IBE) 집행이사회, 불법소유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국제해양학정부간위원회(IOC)에서도 이사국으로 활동 중임.

1)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구성: 5개의 지역별 그룹에서 선출된 58개국 대표로 구성 (4년 임기)
- 금차 총회 피선국 현황 (58개국 중 31개국 개선, 집행이사회 의장으로는 베냉의 Mr. Olabiyi Babalola Joseph Yaï 이 선출됨)

구분		의석수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지역				
I 그룹 (서구,북미)		9석	Norway, Portugal, Luxembourg, <u>United Kingdom</u> (잔여임기포기)	France, Germany, Italy, Greece, Spain, United States of America
II 그룹 (동구)		7석	Lithuania, Serbia and Montenegro, Azerbaijan	Russian Federation, Bulgaria, Albania, Hungary
III 그룹 (중,남미)		10석	Colombia, Mexico Saint Kitts and Nevis,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Brazil, <u>Bahamas</u> (잔여임기포기)	Cuba, Chile, Jamaica, El Salvador, Argentin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12석	China, Japan, Thailand, India, Fiji, Nepal	Malaysia, Philippines, Sri Lanka, Mongolia Republic of Korea Pakistan
V 그룹	(V-a) (아프리카)	14석	South Africa, Ethiopia, Benin, Nigeria, To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Uganda	Senegal, Madagascar, Tanzania, Zambia, Côte d'Ivoire, Niger
	(V-b) (중동)	6석	Egypt, Algeria, Lebanon	Tunisia, Kuwait, Saudi Arabia, Morocco
합계		58석	29석(-2석)	31석

2) 제35차 총회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 목적: 다음 총회에서의 헌장 개정안 및 기타 법률적 문제 검토
- 이사국: 아래의 24개국이 선출됨 (32차 총회 시 21개국이 선출되었으나 33차 총회에서 이사국 수가 24개로 늘어남) (2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부터 35차 직전까지 활동)	34차 총회 피선국 (35차부터 36차 직전까지 활동)
I 그룹 (서구,북미)	Denmark, France, Italy, Switzer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Italy, Israel, Monaco, United States of America
II 그룹 (동구)	Republic of Moldova, Ukraine, Uzbekistan	Romania, Serbia, Slovakia
III 그룹 (중,남미)	Argentina, Ecuador, Guatemala, Jamaica, Saint Lucia	Argentina, Guatemala, Jamaica, Chile, Brazil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India, Iran, Japan, Republic of Korea	India, Iran, Japan, Philippines

V 그룹	(V-a) (아프리카)	Equatorial Guinea, Ghana, Niger	Burkina Faso, Kenya
	(V-b) (중동)	Algeria, Egypt, Lebanon, Sudan	Algeria, Egypt, Lebanon, Sudan

3) 본부청사위원회 (Headquarters Committee)

- 목적: 본부청사 유지 및 확장관련 문제 검토
- 이사국: 24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북미)		Netherlands, Spain, Sweden	France
II 그룹 (동구)		-	Czech Republic, Lithuania
III 그룹 (중,남미)		Saint Lucia	Bolivia, Mexico, Peru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Australia, Bangladesh, DPR Korea	Kazakhstan, Lao PDR
V 그룹	(V-a) (아프리카)	Cameroon, Ghana, Zimbabwe	Congo, Côte d'Ivoire, Kenya
	(V-b) (중동)	Lebanon, Syrian Arab Republic	Algeria

4) 국제교육국 정부간 위원회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 이사국: 28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북미)		Austria, Canada, Netherlands, Portugal	Switzerland
II 그룹 (동구)		Latvia	Czech Republic, Hungary, Russian Federation
III 그룹 (중,남미)		Dominican Republic, Panama, Venezuela	Ecuador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Republic of Korea	India, Japa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V 그룹	(V-a) (아프리카)	Benin, Kenya, Nigeria	Cameroon, Mali, Mozambique
	(V-b) (중동)	Jordan, Yemen	Oman

5)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업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 이사국: 26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Canada, Germany	Austria, France, Israel
II 그룹 (동구)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
III 그룹 (중, 남미)		Jamaica	Brazil, Grenada, Venezuel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China, Malaysia	DPR Korea, Indonesia, Thailand, Viet Nam
V 그룹	(V-a) (아프리카)	Congo, Ethiopi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ôte d'Ivoire, Kenya, Nigeria
	(V-b) (중동)	Egypt, Sudan	Libyan Arab Jamahiriya

6) 인간과 생물권 사업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the Programme on Man and the Biosphere)

- 이사국: 34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Austria, Israel, Sweden, United Kingdom	Germany, Italy, Spain
II 그룹 (동구)		Romania	Latvia, Russian Federation, Slovakia, Ukraine
III 그룹 (중, 남미)		Chile, Cuba	Argentina, Colombia, Dominican Republic, Venezuel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Philippines, Viet Nam	Indonesia, Iran, Republic of Korea, Sri Lanka
V 그룹	(V-a) (아프리카)	Congo, Ethiopia, Gabon	Madagascar, Mali, Togo, Zimbabwe
	(V-b) (중동)	Lebanon, Sudan, Syrian Arab Republic	Egypt

7) 국제 수문학사업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 이사국: 36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Italy, Switzerland, United Kingdom	Finland, Germany, Netherlands, Turkey
II 그룹 (동구)		Slovakia	Bulgaria, Croatia, Russian Federation
III 그룹 (중, 남미)		Costa Rica, Haiti	Brazil, Chile, Paraguay, Peru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Australia, Japan, Kazakhstan, Nepal	China, India, Indonesia
V 그룹	(V-a) (아프리카)	Benin, South Africa	Ghana, Kenya, Senegal, Tanzania
	(V-b) (중동)	Kuwait, Libyan Arab Jamahiriya	Oman, Sudan, Tunisia, United Arab Emirates

8) 불법소유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 이사국: 22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	Greece, Italy, United States of America
II 그룹 (동구)		Hungary	Belarus, Czech Republic
III 그룹 (중, 남미)		Bolivia, Colombia, Guatemala	Peru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China, India, Republic of Korea	Japan, Mongolia
V 그룹	(V-a) (아프리카)	Angol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Burkina Faso, Niger, Zimbabwe
	(V-b) (중동)	Egypt	Libyan Arab Jamahiriya

9) 누비아 박물관 및 이집트 국립 문명 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제 캠페인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ubia Museum in Aswan and the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in Cairo)

- 이사국: 15개국 (임기 2년)

지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Belgium, Canada, Finland, France, Switzerland
II 그룹 (동구)		Czech Republic, Lithuania
III 그룹 (중, 남미)		Peru, Dominican Republic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Iran, Japan
V 그룹	(V-a) (아프리카)	Congo, Djibouti
	(V-b) (중동)	Egypt, Sudan

10)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 이사국: 39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Israel, Netherlands	Denmark, Italy, Spain, Switzer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I 그룹 (동구)		Croatia, Russian Federation	Romania, Hungary, Tajikistan
III 그룹 (중, 남미)		Argentina, Barbados Haiti, Uruguay	Colombia, Jamaica, Venezuel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Afghanistan, DPR Korea Fiji, Pakistan, Sri Lanka, Thailand	Viet Nam
V 그룹	(V-a) (아프리카)	Angola, Burkina Faso	Benin, Cameroon, Mali, Madagascar, Namibia, Senegal, Zambia
	(V-b) (중동)	Saudi Arabia, Tunisia	Jordan, Yemen

11) 사회변동 관리사업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Programme)

- 위원: 이사국: 35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북미)		Belgium, Israel, Sweden	Finland, Switzerland
II 그룹 (동구)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Uzbekistan	Bulgaria, Georgia
III 그룹 (중,남미)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Venezuela	Argentina, Ecuador Panam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Afghanistan, Malaysia Sri Lanka, Thailand	Indonesia, Kazakhstan, Pakistan
V 그룹	(V-a) (아프리카)	Congo, South Africa, Uganda	Mozambique Côte d'Ivoire, Angola, Kenya, Benin
	(V-b) (중동)	Egypt, Morocco	Qatar, Yemen

12) 정부간 생명윤리 위원회 (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 이사국: 36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북미)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Netherlands	Denmark, Switzer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I 그룹 (동구)		Czech Republic, Poland, Slovakia	Russian Federation
III 그룹 (중,남미)		Cuba, Peru, Uruguay	Colombia, Jamaica, Dominican Republic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Japan, Kazakhstan	DPR Korea, India, Iran, Republic of Korea Philippines, Indonesia,
V 그룹	(V-a) (아프리카)	Cameroon, Keny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enegal, Zambia	Madagascar, Mauritius, Togo
	(V-b) (중동)	Mauritania	Lebanon, Saudi Arabia, Syrian Arab Republic

13) 체육교육 및 스포츠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 이사국: 18개국 (4년 임기)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Greece	Austria, Spain
II 그룹 (동구)		Croatia	Lithuania, Ukraine
III 그룹 (중, 남미)		Jamaica	Cuba, Ecuador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Bangladesh, Iran	Malaysia
V 그룹	(V-a) (아프리카)	Cameroon, Gabon	Kenya
	(V-b) (중동)	Oman, Saudi Arabia	Algeria

14)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이사회 (Governing Board of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이사국: 개인자격의 12개국 대표 (4년 임기로서 6인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6인은 유네스코 총회가 선출함)

사무총장 임명	기존 이사국	34차 총회 피선국
*United States of America *Finland, *France, Japan, Canada, Turkey (* 2007년 임기 만료 기 타는 2009년 임기 만료)	Mr Ahmed Gouitaa (Morocco) Mr John Baptist Male -Mukasa (Uganda) Mr Michael Söndermann (Germany)	Mr Rolands Ozols (Latvia) Ms Laura Salamanca (El Salvador) Mr Chen Guoliang (China)

15)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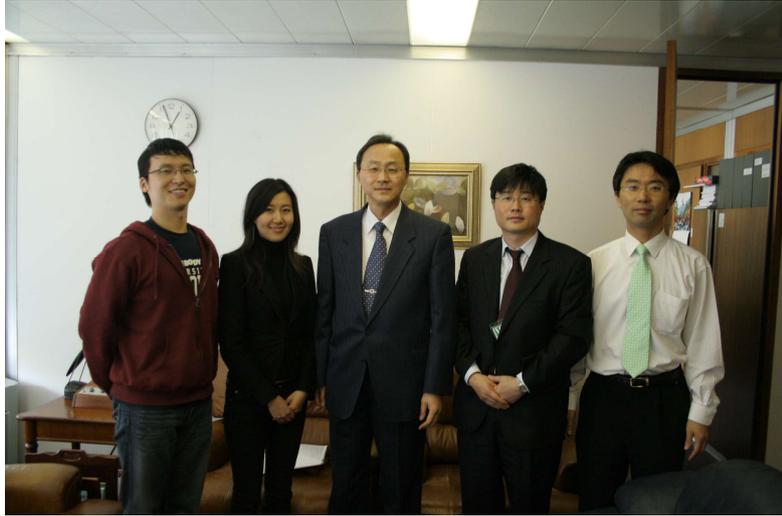
- 이사국: 21개국 (임기 4년)

33차 총회 피선국	34차 총회 피선국
Canada, Cuba, Israel, Kenya, Republic of Korea , Madagascar, Mauritius, Morocco, Peru, Spain, Tunisia,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Bahrain, Barbados, Brazil, China, Egypt, Jordan, Nigeria, Sweden

V. 특별회의

가.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

제34차 유네스코 총회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 12-13일 이틀간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116개 회원국 청소년 대표 174명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준회원국 등에서 참가한 참관자를 포함 총 261명이 참석하였음. 이번 포럼에서는 2005년 개최된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청소년 포럼 권고에 따라 2006-2007년에 걸쳐 개최된 지역포럼들에 관한 보고와 평가가 있었으며, 이번 총회에서 열린 두 개의 장관급 원탁회의(round table) 주제인 교육과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공헌- 유네스코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논의의 결과물인 동 포럼 보고서는 각 회원국의 유네스코 총회 대표단에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총회 본 회의와 두 개의 원탁회의에 보고되었음.

● 보고서 요지

이번 포럼은 크게 전체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었으며, 개회식을 포함한 전체회의에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각 지역 포럼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 두 가지 원탁회의에 대한 주제 발표, 전체 및 실무그룹 의장 및 기록자 선출 등이 이루어졌음. 지역 포럼 결과 발표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본부가 공동으로 금년 6월 25-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한 제1차 아시아 유네스코청소년포럼을 일본 청소년 대표 MIHARA Reiko 양이 발표하였음. 한편,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정지은 양은 실무그룹 9개 중 H그룹의 의장으로서 10월 14일까지 이어진 최종보고서 수정 작업을 담당한 초안작성위원회(drafting committee)에서 활약하였음. 원탁회의 관련 주제별 주요 토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1주제(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에 대해서는,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공교육 체제 못지않은 비형식, 무형식 교육의 의미를 지적함. 또한 유네스코의 Education for All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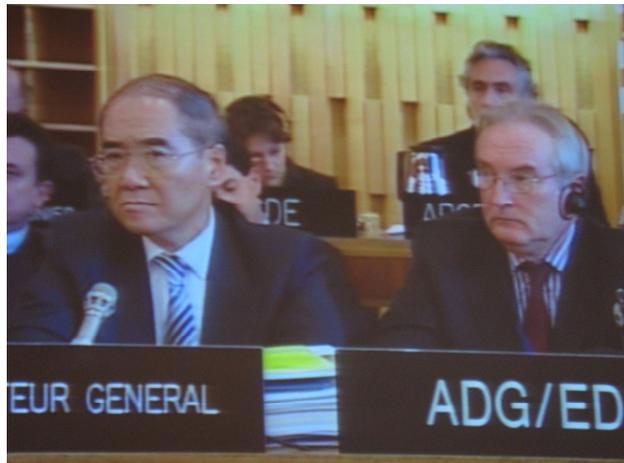
같은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점과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있어 대상 집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제2주제인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role of UNESCO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교육·문화 등의 영역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유네스코는 과학기술 윤리를 세우고, 좋은 사례를 발굴 보급하며 정부 및 기관 간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나. 교육장관 원탁회의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교육장관 회의는 2003년 양질의 교육, 2005년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를 주제로 한 것에 이어 올해는 10월 19일-20일 양일간 교육과 경제발전을 주제로 함. OECD 사무총장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참석한 각국 교육 장관들이 회의의 4가지 주제(교육과 발전에 대한 권리, 교육과 경제발전,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함. 모든 패널과 토론 발언국은 각 주제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제시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지지하였음.

● 성명서 요지

국제사회는 특히 소외된 집단에 대한 공정한 교육과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노력으로 12월 다카에서 개최되는 EFA 고위그룹 회의와 2008년 11월 제네바에서 특수교육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교육회의(ICE)에 대해 언급함.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역으로 경제발전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발전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 설명함.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DESD) 선도기관으로써 유네스코의 국제적 조정역할을 강조하였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이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동과 가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언급함. 교육 지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예로 EFA, MDG, EFA Fast Track Initiative,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UN 개혁 등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협력(특히 남남협력, 북남남 협력)을 통한 자원과 우수사례 공유를 강조함.



다. 과학장관 원탁회의

올해로 두번째로 개최된 과학장관 원탁회의는 2005년 주제 ‘기초과학’에 이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을 주제로 개최됨. 약 48명의 회원국 과학장관, 25명의 차관 총 350여명이 참석함. Valerie Pecress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성명서 요지

국가과학기술정책 개발, 국가간 지식의 공유, 과학교육의 강화 등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전을 언급하는 한편, 과학기술경영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강조됨.

라.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회의

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회의 의장인 Mme. Margaret Austin (前 뉴질랜드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개회로 회의가 시작됨. Mr. Kulikowski (ERC/RSC) 국장은 새로 채택될 34C/4 및 34C5가 국가위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개함. 특히, 'One UN' 노력에 유네스코가 적극동참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가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힘. 이밖에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세미나 및 국가위원회 매뉴얼 개정작업 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임을 알림.

- Mr. Barbosa DDG는 유엔개혁과 유네스코 조직 분산화 과정에서 사무국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을 강조함. Mr. Barbosa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교육부가 유네스코 협력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사업의 경우 회원국과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나 과학사업의 경우는 회원국 관련 정부부처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언급함. Mr. Barbosa는 회원국에서의 유네스코 과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 국가위원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특히,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통한 유네스코 산하의 다양한 과학 분야 정부간 기구들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한편, Mr. Barbosa DDG는 유네스코 조직분산화 2단계 과정과 UN의 'Delivering as One' 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8개 나라에서 진행 중인 Pilot Projects의 업무협력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과정에서 국가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함.
- Mr. Barbosa DDG의 발표에 이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이 이어짐.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웨덴 등은 DDG의 유네스코 과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역할강

화 제안을 환영하며 이의 필요성에 동의함. 한편, 독일, 베트남 등은 'Delivering as One' 등의 One UN 노력 과정에서 회원국 국가위원회가 적극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위원회 간의 파트너십 강화, 특히 국가위원회를 통한 North-South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함. 스위스, 슬로베니아, 베네수엘라 등은 국가위원회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국가위 위원장 및 사무총장 회의 운영위원회와 회원국 국가위원회 간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 설치'를 제안함. 또한 스웨덴과 네델란드는 유네스코 내 여성 대사들의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사무국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산타루시아는 회원국 국가위원회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상열 사무총장은 국가위원회의 자문, 연락, 사업실행, 조정 등의 기능이 회원국의 국내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무국의 지원과 함께 회원국 상호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함.

- 한편 지난 4년간 '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 모임' 의장을 맡아온 Mme. Margaret Austin 前 뉴질랜드 위원장은 본인과 지역별 대표(5개 지역별 대표 각 2명)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새로운 의장단 선출을 위한 후보 추천을 받고자 하였으나,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차주 지역별 국가위원회 모임 때까지 의장단 선출을 연기하기로 결정함.

마.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비공식 지역회의 (아태지역)

2008년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자문회의는 필리핀(Mrs. Preciosa S. Soliven)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에서 개최토록 하고 세부적인 일정과 의제는 사무국과 논의하기로 결정함. 필리핀은 제안 설명과 함께 필리핀의 카테고리 II 아태지역 평생학습 센터 유치를 언급함. 아태지역그룹(IV)에서 국가위원회 Steering Committee에 추천할 2개국으로 통가와 필리핀이 선출됨.

- 우즈베키스탄은 차기 C4 준비에 있어 과학 사업 비중을 늘리고, 국가위의 역할로서 카테고리 II 기관 모니터링을 제안함. 또한 PP축소에 따라 유네스코 쿠폰 사업과 같이 국가위의 역할을 늘릴 수 있는 여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함. 파키스탄은 하나의 유엔 프로그램 시범국가로서 유엔 개혁에 따른 유네스코 사업 실행의 변화를 강조하며, 이에 국가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함. 필리핀은 지역 자문회의 과정에 E-Conferencing 도입을 제안함.
- 한국의 이상열 한위 사무총장은 지난 하노이 자문회의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아태지역의 우선사업(priority programme)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sub-region이 많은 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sub-regional 회의를 제도화하여 종교대화, 인권, 이주 등의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는 DG의 분산화 개혁목표와도 일치함을 강조. 몽골은 현재 광범

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주문제를 다음 지역자문회의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함. 이주는 한 국가를 넘는 지역적 국제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유네스코의 여러 부문의 문제와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함.

- 일본은 ESD 진흥을 위해 제출한 교육분과 DR(34C/DR.40) 지지를 언급한 후, 유네스코가 해당분야의 주도 기관이 되어주길 당부함.

바. 학제간 공동회의 (Interdisciplinary Meeting)

학제간 공동회의는 금차 총회에서 처음 시도된 회의 형태로서,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총회 산하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한데 모여 유네스코 중기전략 및 조직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주제를 같이 논의함. 그러나 표제회의는 의제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회의 성격으로 개최되었으며 토론 내용을 총회의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영향력을 제한함.



전반적으로 학제간사업의 Platform 마련에 대한 의견 교환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학제간 사업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그러나 회원국들은 그 실천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사무국의 학제간 사업 이행 강화를 위한 조직 내부 개혁과 예산 증가 등을 요구함.

특히, 노르웨이는 학제간사업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조직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사무처 업무구조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에 대해 사무처(문화 ADG) 측은 학제간 사업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내에서도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자체논의가 있었으나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가운데 최대한 다른 사업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유네스코 조직의 전면적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그러나 task force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의향이 있음을 밝힘.

한편, 멕시코, 영국, 네델란드, 독일, 노르웨이, 브라질 등은 C/4 및 C/5 문서 간의 연계성 강화, 우선사업 수의 축소, 측정가능한 결과 중심적 사업운영 등을 강조함. 특히 노르웨이는 MDG, EFA 등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35C/5

사업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유네스코의 장점인 다학제성을 살릴 것인지 고민해야 함을 강조함. 노르웨이는 또한 최빈국, 소외계층, 아프리카, 양성평등을 유네스코 우선순위사업 핵심 주제로 삼아야 하며 현재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기후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브라질과 독일 등은 이전 회기 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사업예산 수립절차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함과 아울러 학제간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함.

한편 우리 대표단의 이상열 총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실시해온 학제간 사업 시범 운영을 예로 들며 학제간 사업 이행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제간 사업 개발 및 실천을 위한 특별 Taskforce 구성을 제안함. 아울러 이상열 사무총장은 학제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효과적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학제간 사업노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함.

사. 시민사회 포럼

금차 총회에서 처음 시도된 회의 중 하나로서 정부대표는 물론, 국회의원, 지방정부, NGO, 국제기구, 사기업, 유네스코협회연맹 대표 등이 한데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다원주의의 필요성, 유엔개혁의 방향과 시민사회 참여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함. 특히 이날 첫 번째 주제연설자로 나선 전 프랑스 외무부장관 Mr. Hubert Vedrine은 발표를 통해 유엔 창립의 이유 중 하나였던 지구적 협력과 다원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유엔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보다 직접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엔의 운영 및 의사결정과정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유엔의 정책결정과정이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대표들에 의해서만 이끌어진다면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낡은 외교의 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제문제 논의에 있어 시민사회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유엔 개혁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함.

포럼에 참석한 전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 Mr. Nitin Desai, 유엔 지식인 역사사업 공동의장인 Mr. Richard Jolly, 국회의원연합 부위원장인 Mr. Abdelwahad Radi 등도 국제 및 국내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함을 언급함. Mr. Jolly는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참여가 있을 때 유엔의 투명한 관리.운영은 물론 유엔시스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리버티재단의 Mr. Hylton Appelbaum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프랑스 로레알(사) 이사장 Mr. Lindsay Owen-Jones는 그 동안 유네스코와 로레알(사) 간의 성공적 협력관계 및 활동 사례 등을 소개함. 이밖에도 포럼에 참석한 NGO 대표,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 대표, 회원국 국가위원회 대표 등도 발표를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 강화를 위한 각각의 노력들을 소개함.

포럼 참가자들은 포럼 끝부분에 ‘국제사회 제문제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채택함.



VI. 한국대표단 활동

가. 한국대표단 명단 (총 30명)

- 1) 수석대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2) 교체수석대표: 조일환 주 프랑스 대사
- 3) 대표: 배재현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이병현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정석구 주 프랑스 유네스코 대표부 공사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4) 교체대표: 구삼열 문화협력대사
최은옥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오진희 주 프랑스 유네스코 대표부 1등서기관
김천홍 주 프랑스 유네스코 대표부 교육관
- 5) 자문: 강대중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심민철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책정보과 사무관
김기민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 주무관
김서연 교육인적자원부 계약직 연구원
김세원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2등서기관
이병국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팀장
강신복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팀 사무관
이은영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
김광남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장
김주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김경애 여성정책연구원장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이순탁 국제수문환경학회 회장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최순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임현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보커뮤니케이션팀장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 국제협력담당

* 청소년포럼 참가자 (총 2명)

- 박세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정지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재학 중

★ 유네스코 한위 참관자 명단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동학교팀원
 강상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원
 이봄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원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팀원

나. 한국대표단 주요활동

대표단		총회 참석 기간	주요 업무
수석대표 김신일 교육부총리		10월18일-20일	본회의 참가, 사무총장 면담, 교육장관 원탁회의 참가
교체수석 조일환 주 프랑스대사		10월16일-11월3일	본회의, 주요회의 및 선거 참가
대표	배재현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10월21일-26일	본회의, 주요회의 및 선거 참가
	이병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10월18일-20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정석구 주 프랑스 유네스코대표부 공사	10월16일-11월3일	본회의, 주요회의 및 선거 참가 대표단 협력 총괄
	이상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0월13일-26일	본회의, 주요 분과회의 및 특별회의 참가, 주요인사 면담
교체대표	구상열 문화협력대사	10월15일-19일	본회의 참가
	최은옥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10월18일-20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오진희 주 프랑스 유네스코대표부 1등서기관	10월16일-11월3일	본회의, 주요회의 및 선거 참가
	김천홍 주 프랑스 유네스코대표부 교육관	10월16일-11월3일	본회의, 주요회의 및 선거 참가
고문	강대중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1등서기관	10월18일-20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김세원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2등서기관	10월21일-26일	본회의 참가, 주요회의 참가
	심민철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정책과 사무관	10월18일-20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김기민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 주무관	10월18일-20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김서연 교육인적자원부 계약직 연구원	10월18일-20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이병국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장	10월26일-29일	문화분과 참가
	강신복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팀 사무관	10월26일-29일	문화분과 참가
	이은영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	10월24일-29일	문화분과, 세계유산협약 총회 참가
	김광남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장	10월17일-23일	문화분과 참가
	김주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10월24일-29일	문화분과 참가
	김경애	10월26일-30일	인문사회분과 참가

	여성정책연구원장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10월25일-29일	인문사회분과 참가
	이순탁 국제수문환경학회 회장	10월22일-26일	자연과학분과 참가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10월17일-25일	본회의, 교육분과 참가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0월16일-27일	한국대표단 총회참가 지원업무 총괄, 행정분과 참가
	최순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10월22일-24일	교육분과 참가
	임현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10월23일-30일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분과 참가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10월23일-29일	문화분과, 세계유산협약 총회 참가
	윤병순 유네스코한위 정보커뮤니케이션팀장	10월26일-29일	커뮤니케이션분과 참가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 국제협력담당	10월16일-27일	한국대표단 총회참가 지원,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과 참가
청소년	박세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10월12일-13일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참가, 본회의 참관
	정지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재학	10월12일-13일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참가, 본회의 참관

*** 유네스코 한위 참관단 주요활동**

참관단	총회 참관 기간	주요 활동
서현숙 유네스코 한위 협동학교팀원	10월15일-27일	본회의, 교육분과, 인문사회과학분과 참관
강상규 유네스코 한위 기획실원	10월19일-11월1일	본회의, 교육분과, 과학분과, 동아시아국가위 회의 참관
이봄미 유네스코 한위 교육팀원	10월15일-27일	본회의, 교육분과, 교육장관원탁회의 참관
조우진 유네스코 한위 청소년팀원	10월10일-10월16일	청소년포럼 참가자 인솔 및 포럼 참관



VII. 한국대표단 발언문

가.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김신일 부총리)

Mr. President,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Let me begin by joining others in warmly congratulating you, Mr. President, on your election to this very important post. I wish you every success in your new role. May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for Director-General Koïchiro Matsuura, for his unremitting efforts to reform UNESCO towards the noble causes of peace and shared prosperity.

Allow me to inform you, Mr. President, that the inter-Korean summit was recently concluded in success in Pyongyang. This historic meeting paves the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e efforts will continu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and eventually contribute to a culture of peace across Northeast Asia.

To this end, I wish to request the active support of all Member States in the important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South-North Korean Declaration states, both sides seek to develop exchange and cooperation in many areas including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culture and arts. It is my belief that such endeavours will be able to flourish through UNESCO activities.

Mr.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emerged as a major player in the global economy and a mature democratic society. The transformation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valuable assistance exte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tur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nds to raise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0.25 percent of GNI by 2015. We also seek to share our unique experience with countries in need, and help them overcome poverty and promote peace.

Mr. President,

In order to be strong, UNESCO should exert more effort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this regard, we believe that UNESCO should participate fully in the United Nations reform process and work more closely with other UN agencies while avoiding the duplication of efforts.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s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which gives top priority to providing “quality education for all,” critical to the attain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s we have learned from our own past, education plays a key role in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form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building blocks of an advanced democratic and stable society.

With this recognition,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assist the attainment of Education for All(EFA)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rough its Funds-in-Trust contribu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use of ICTs in education. We will cooperate more actively in the Teacher Training in Sub-Saharan Africa programme, a priority initiative of UNESCO geared at EFA achievement.

The Republic of Korea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in achieving the goals of Education for All. We strongly support UNESCO’s continuing efforts to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s contained in the document 34 C/5. We intend to cooperate closely with the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and with other Member States in organizing the 6th CONFINTEA, to be held in Brazil in 2009.

Mr. President,

The document 34 C/4 identifies ‘fostering cultural diversity’ as one of its overarching objectiv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should be given due emphasis.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leased to announce that it will shortly ratify the Convention, and join international efforts in pursuing the objectives laid out in the Convention.

I also believe that cultural properties are important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people's identities. That is why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to the country of origin has a particular importance. To return such artifacts is not only a powerful expression of respect for the country of origin, but also a stepping stone for inter-cultural reconciliation. With this in mind, we plan to host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y of Origin' in Korea next year.

As one of the countries primarily responsible for introducing the concept of the 'Living Human Treasu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he Republic of Korea commends the Organization's ongoing efforts to preser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e reconfirm our commitment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s in the Asia-Pacific. In this respect, I am pleased to men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making final preparations to open a regional centr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recent years, climate change has also emerged as a major threat to sustainable development. We find it timely that UNESCO is providing support for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d also conducting research activities on the agenda through its science programmes. Certainly, UNESCO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dealing with this issue by promoting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r. President, let me conclude by reaffirming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the high ideals that UNESCO stands for. We have supported UNESCO from its very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der the shared mission of creating a better world for all.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나.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과 발언문

- 의제 14.2. 유대인 대학살 상기안
발언: 전진성 (한위 기획실원)

Thank you madam chair, the Republic of Korea is happy to be a co-sponsor of this draft resolution, and we fully support the proposal including the modification made by the United States, Thank you.

-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참여사업 및 국가위 역량 강화)
발언: 전진성 (한위 기획실원)

Thank you madam chair,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echo the statement made by France and New Zealand. During the current biennium, we submitted only four proposals. All of them were designed for the benefit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This programme has been a useful tool to develop a North-South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In this regard, use of the PP funds for such purpose should not be restricted. Concerning the capacity building of National Commissions, we appreciate UNESCO's continu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operational capacity of National Commissions through its capacity-building programmes. Thank you.

- 의제 4.2. 2008-2009년도 사업 및 예산안 (유네스코 펠로우쉽 사업)
발언: 전진성 (한위 기획실원)

Thank you madam chair, even though it is rather belated, from this point o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voluntarily refrain from accepting any further benefits from UNESCO's fellowship programme, and we hope that the amount saved will be offered to countries in need. Thank you.

- 의제 5.7. 유네스코 이름, 약성어, 로고 및 인터넷 도메인명 사용에 관한 지침
발언: 전진성 (한위 기획실원)

Thank you madam chair, concerning the proposed tools for handling requests for and measuring the impact of authorizations of the use of UNESCO's name and logo,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add a few minor remarks. First, a flowchart indicating the sequence of actions in a particular process may help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procedure for authorization and

evaluation. Secondly,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m to be completed and submitted by the requesting organization, we suggest that applicants also provide the actual image they intend to use indicating the envisaged modalities of the use of UNESCO's name and logo so that UNESCO can more adequately identify the proper use of its name and logo. Thank you.

다. 교육분과 발언문

- 의제 4.2. 2008-9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발언: 이삼열 (한위 사무총장)

Thank you Mr.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grateful to UNESCO's effort to achieve quality education for all as sectoral priority programme and to develop strategies for cross-cutting priority project Africa, particularly in sub-Saharan region. Korea is especially concerned to strengthen its partnership with UNESCO's programme like TTISSA, and EDUCAIDS and also with UNESCO's institutions in Africa like IICBA and BREDA.

How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apacity building of educational teacher-training. In this regards, I think, the role of IICBA(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pacity Building in Africa), only one UNESCO's institute in Africa, very crucial. And I think, we have to strengthen them, the capacity of IICBA, before IICBA do capacity building of education in 50 countries in Africa. Document 34 C/5 shows the budget for IICBA only 2 million dollars plus half million dollars of extra-budgeting funds. According to report this morning, IICBA has only 14 staffs for whole Africa including drivers and interns. How can IICBA accomplish capacity building in Africa on this condition? I have visited last July IICBA in Addis Ababa and saw the land 2000 square meters given by Ethiopian government, but there is no money and plan to build the office and training center of IICBA. We will have to establish some special fund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IICBA and to provide the building and facilities to train teachers and educational specialists to promote qualified education for all in African countries.

Republic of Korea is appreciating very much the financial contribution of China 700,000 dollars to IICBA and Korean government is now developing half

million dollar project for ICT training for teachers through IICBA.

I hope we could have some more concrete discussions on strategy and masterplan to upgrade the capacity o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pacity Building in Africa if we are really meaning the cross-cutting priority of Africa. Thank you.

- 의제 5.14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UNDESD)증진 (DR 1, 일본, 독일 공동제출)

발언: 이상열 (한위 사무총장)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has started in 2005. Already 3 years have passed. Many launching ceremonies have been organized in various regions and cities.

But I think not much substantial developments have been made yet in the concrete field of education of many countries and regions regarding ESD. Problems and obstacles are many, but important thing is the difficulty of the integrating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nto various aspects and subjects of different educational curriculum. Many countries and schools identified ESD just a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others as economic development, or just as human right, peace education.

They say we are doing ESD already in our schools, why we need another education like ESD.

So ESD is practiced in the fragmented way. The holistic conceptual frame work is lost and forgotten.

We need to develop more thoroughly the frame work of ESD and the practical guideline to implement the holistic concept of ESD in the broad areas and subjects of education and how to promote the contextualized approaches of ESD in the concrete fields of different countries.

In this regards, the role of UNESCO as the lead agency of Decade of ESD is very important. And I am sorry to say this, but the leadership role and coordinating work of UNESCO headquarters and the prosper program and

budget are very much lacking and insufficient.

Republic Korea appreciates much and fully supports the efforts and resolutions of Japan and Germany.

The central coordinating work of UNESCO regarding conceptual frame work, curriculums guidelines of teacher training should be strengthened and carried on effectively. Thank you.

● 의제 3.2. 2010-2011 사업 및 예산안 준비(35 C/5)

발언: 이삼열 (한위 사무총장)

Republic of Korea is proposing UNESCO that Korea may host the Second Arts Education Conference in 2010. To save time, I would like to read the request that minister of Culture of Korean government has committed me to convey.

Korea expressed its wish to host the 2010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during the 2006 session held in Lisbon. The decision was made based on our recognition of a need for global expansion of educating creativity through culture and ar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like to extend our gratitude to UNESCO and all the participants in the 2006 session, including the host country, Portuguese government, for their unwavering support for our desire as the host nation of the 2010 session. Please be assured that we will do our best and utmost to make the 2010 session a success and develop the arts education road map that was drawn up at the last session.

Arts education is directly related to an improvement of school education, social integration, and practices of cultural diversity. And all UNESCO member countries would agree with no doubt that research and information exchange should be stimulated and strengthened beyond national borders.

The Korean government would like to provide the forum and venue for the 2010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where the art education professionals worldwide can produce more concrete ideas for the active exchange of arts education to be put into practice. For this end, we are

planning diverse preliminary events in 2008 and 2009 for the preparation of this conference, and we hope that our concern and request be received positively and implemented in the discussion of 34th General Conference. Thank you.

라. 자연과학분과 발언문

- 의제 3.1.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안 (34C/4)심의 및 채택
발언: 임현묵 (한위 과학팀장)

We support Overarching Objective 2 and its related strategic objectives.

We agree that understanding changes of the earth systems and related scientific knowledge are cruc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in Africa and small island countries.

In this regard, UNESCO's action needs to be highlighted more clearly focusing on its international scientific programmes such as IOC, IHP, and MAB. We highly commend the work of IOC, particularly its ocean monitoring programmes.

IHP also deserves high reputation with its contribution to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and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Given that the majority of category 2 centers are established in the field of fresh water, however, UNESCO needs to develop a specific strategy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se water-related category 2 centers.

MAB enjoys distinctive visibility throughout the world with its World Biosphere Reserve Network. Particularly, it has special meaning for Korea. Recently at the Summit meet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was agreed to create 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to ease military tension and promote common use of natural resources in that area. In relation to this, we had been exploring possibilities for establishing a marine peace park in the West Sea utilizing the MAB trans-boundarybiosphere reserve mechanism. We hope that UNESCO will continu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is and provide necessary advice and technical support.

Mr. Chairman,

With respect to capacity-build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UNESCO is very right to emphasize the fundamental role of science education. Improving curricula and content of science education is most needed; but also training of good quality science teachers is vital.

Basic science and engineering sciences also constitute the very core of capac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BSP (International Basic Science Programme)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regard and, as set out in its new strategy, it should focus on promoting science education and institutional capacity-building rather than supporting isolated projects proposed by Member States. Thank you.

● 의제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Part II.A. 주요사업 II - 자연과학

발언: 임현묵 (한위 과학팀장)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with the three sectoral priorities as outlined in 34 C/5 2nd version. We welcome the clear focus laid on capacity-building and policy advice with a view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role of science in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also appreciate that special needs of Africa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well reflected in the programme and budget. The Republic of Korea is keenly interested in supporting African initiativ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notably with regard to establishment of science parks and incubators.

Mr. Chairman,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the role of ISPs is highly pertinent. We are satisfied to see that strategic orientations of these ISPs, most notably IOC, IHP, and IGCP, have recently been geared towards the common task of producing and sharing knowledge and building capacities pertaining to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eduction and preparedness. In our opinion, this modality of separate action under the common theme is one of the desirable ways of enhancing interdisciplinarity.

We expect that MAB will likewise reorient its direction in the similar way at the upcoming World Congress of Biosphere Reserves in Madrid next February. We would like to see global and regional strategies to be formulated in this Congress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relevancy of biosphere reserves to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In this connection,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through our Ministry of Environment's Funds-in-Trust contribution. We note with special interest proposed realignment of MAB Council at the regional or sub-regional level. We are also very much interested to take part in research projects on climate change in mountain biosphere reserves.

Mr. Chairman,

We welcome reorientation of IBSP to focus on science education and science advocacy. In this connection,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Korea Science Foundation will co-organize with UNESCO the "Asia-Pacific Regional Forum on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in Seoul next month. The Forum aims to establish a regional network of institutions and experts with a view to fostering a science culture which nurtures peopl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 emphasis will be given to science education for youth. We look forward to Asia-Pacific Member Stat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forum and also in the network for science culture to be established at the forum.

- DR 39 (브라질 제출, 세인트루시아 지지) IOC 예산 1,045,000불 증액안
발언: 임현묵 (한위 과학팀장)

Korea also has been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work of IOC as a member of its Executive Council for a number of years. We support the UK proposal to send a strong message for budget increase of IOC to the joint meeting of Commissions.

- 의제 3.3. 주요사업 II 및 III 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발언: 김천홍 (대표부 서기관)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sympathetic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that ISPs should be reorganized into problem-oriented programmes. It would be ideal if all ISPs were integrated into one

programme. However, we must tread very carefully here. Each ISP has its own intergovernmental council and scientific board which decide upon its activities and operations. If we admit that the viability of each ISP is linked to scientific integrity and expertise, we also have to admit that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of each ISP is indispensable.

The question is how to enhance synergy and overall co-ordination among ISPs, whilst maintaining the integrity and expertise of each programme. One possible option is to facilitate information exchange among ISPs at the national level. For example,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has organized an annual workshop for national committees of ISPs since 2005. This undertaking has proved to be very effective in harmonizing and increasing synergy among ISPs at the national level.

We hope that this model of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mong ISPs at the national level can be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and that UNESCO will support this implementation. Thank you.

마. 인문사회과학분과 발언문

- 의제 5.6.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카테고리 II 기관 설립

발언: 임현묵 (한위 과학팀장)

We support proposals for category 2 centers presented to our Commission.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extend a special welcome to those centers and institutions which, if approved by this General Conference, will be hosted by Asia-Pacific countries. We believe that these new members of the UNESCO family will certainly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MDGs and realizing the UNESCO's strategic goals. We are very much interested to cooperate with these new center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those in the Asia-Pacific region.

- 의제 5.10 유네스코와 네덜란드 물교육연구소(IHE)간 운영협약 갱신

발언: 이순탁 (IHP한국위원회 부위원장)

We recognize the high reputation of IHE in the field of water education. As in many other countries, we have a great number of IHE alumni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working as professionals in water-related areas. We see that IHE is an important tool of capacity-buil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management of fresh water resources, and therefore support the renewal

of operational agreement between UNESCO and the Netherlands. Believing that supporting IHE fellowships for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an effective way of North-South and South-South cooperation,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is exploring possibilities for making contribution in this regard.

- 의제 3.1.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안 (34C/4)심의 및 채택
발언 : 이삼열 (한위 사무총장)

The Asia-Pacific Consultation Meeting of National Commissions last year in Hanoi expressed our strong demand for the reinforcement of social science programmes in order to enhance the capacity for our responses to social transformation. We note with satisfaction and gratitude that this Asia-Pacific request has been in some way reflected in 34C/4. We hope that UNESCO's social science programmes, particularly MOST, will help both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cope with rapid social changes caused by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ocialization throughout the world. Strong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improving developing countries' national capacity and competenc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and on the facilitation of North-South and South-South collaboration in social science research and education.

We welcome also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hilosophical reflection and dialogue with a view to a culture of peace. Indeed, inter-cultural dialogue among different civilizations is vital in today's fragmented world, and philosophical dialogue is a unique method of enhanc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will be held in Seoul, Korea in July to August 2008 with the theme of 'Rethinking Philosophy Today.' It is first time for this Congress to take place in an Asian country and non-Western world. Also the Korean Women Philosophers Association will organize the International Women Philosophers Congress on 27-29 July prior to the World Philosophy Congress. I would like to request UNESCO to support and encourage this significant event through participation and sharing.

Mr. Chairman,

We note with great interest that the issue of 'youth violence' is mentioned in the revised draft C/4 document. The extremely competitive nature of the

current globalization is producing increased frustration, fear, and anger among youth in many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vital for UNESCO to pay special attention to youth and the report of youth forums. We need to regard the youth not just as a problem, but view them as a subject and support research and policy from their perspective.

With regard to Strategic Objective 10 on intercultural exchange and dialogue, specially concerning quality education,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revision of textbooks and curricula with a view to removing stereotypes and prejudices against other groups, nations, races, and religions. Correcting distorted images of others and fostering tolerant and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all people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developing a culture of peace. Recentl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organized the 'International Forum on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in Seoul to examine the on-going historical dialogue in the region and to find ways to further promote such dialogue. UNESCO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reforming history education so as to incorporate achievements of historical dialogue into history textbooks and disseminate them widely. Thank you.

- 의제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Part II.A. 주요사업 III - 인문사회과학

Priority 1: Promoting bioethics and the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언: 임현묵 (한위 과학팀장)

Korea welcomes the priority on 'Promoting bioethics and the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k of IBC and COMEST has been that of high quality and produced many valuable outcomes. Interdisciplinarity is crucial in this regard and it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long with interdisciplinarity, we would also like to emphasize the dimension of education in the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Ethical reflection should be promoted and encouraged in science education at all levels. Particularly, UNESCO's declarations in the field of bioethics should be known to students and young researchers more widely.

Our last point is concerned with bioethics. Firstl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women's rights in life science research and medicine should be recognized and promoted. Secondly, as the delegate of the Philippines has stressed, cultural dimension ha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ifferent perspectives and wisdom on bioethics in different cultures should be acknowledged and dialogue among these perspectives should be supported.

Priority 2: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research systems in order to provide policy-oriented research on social and ethical issues

발언: 김경애 (여성정책연구원장)

Given the Organization-wide focus on policy advice and capacity-building in the next medium-term, the delegation of Korea considers "Strengthening national research systems" as the most fundamental task of UNESCO. It should be pursued not only by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Sector alone but also by Natural Science Sector and Education Sector in an intersectoral framework.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strengthening of MOST programme, which has been one of the persistent requests from many Asia-Pacific Member States, and we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modality of action in this programme. According to 34 C/5 or C/6Add, it is foreseen to give support to the development of policy-oriented research on such issues as poverty eradication, migration, urban issues, youth, and gender policies.

Given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it would be advisable for UNESCO to focus 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y on social science research and education of Member States. Also,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international or regional collaborative research should be emphasized as an effective tool for knowledge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in social and human sciences and natural science as well. We hope to see UNESCO working more as facilitator of such collaborative research in the afore-mentioned areas.

Mr. Chairperson,

As in many other countries, migr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against international migrants are posing serious threats to culture of peace in our country. We are very much interested in working with other Asia-Pacific countries to promote culture of peace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international migration. Thank you.

Priority 3: Philosophy and human science

발언: 임현목 (한위 과학팀장)

Korea welcomes the strengthening of philosophy and human science as outlined in 34 C/5. Philosophy and human science, particularly history, occupy a unique place in intercultural dialogue and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since they represent or embody worldviews, ways of thinking, and collective memories of communities and societies. One important point in this regard is that intercultural philosophical dialogue should not become so academic as to alienate the general public, but should aim to address urgent societal concerns such as conflicts between different religions and ethnic groups.

With respect to promoting culture of peace through intercultural dialogue,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dialogue as well as of philosophical dialogue. Historical dialogue plays an essential role in removing stereotypes and prejudice against other groups and nations. Since misunderstanding and mistrust against others are often more seriou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such historical dialogue not only at the inter-regional level but also at the sub-regional level.

바. 문화분과 발언문

● 의제 3.1 2008-2013 중기전략(34C/4) 논의

발언: 오진희 (대표부 서기관)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culture, in particular, the overarching objective of "Fostering cultural diversity, intercultural dialogue and a culture of peace". We believe that cultural diversity guarantees viable future for humanity and that intercultural dialogue is the best tool against the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fundamentalism which still prevail in the world today.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inclusion, in the 34 C/4, of the follow-up of Lisbon Roadmap adopted at the 2006 Lisbon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and contribution to the 2nd Conference proposed to be held in Seoul.

Arts education is directly related to an improvement of school education, social integration, and practices of cultural diversity. And all UNESCO member

countries would agree with no doubt that research and information exchange should be stimulated beyond national borders.

The Korean Government will host the next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in 2010 so that participants who recogniz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will share their achievement, exchange information and discuss more concrete ways to implement their actions.

To this end, the Republic of Korea asks the Director-General to prepare a concrete plan for the next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and to be actively involved in extra-budgetary fund raising decided in 175th Executive Board.

Lastly, we would like to request a small correction in the point 96 of 34 C/11. Seoul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will be held in 2010 not 2009 as described in the point 96 of 34 C/11. Thank you.

● 의제 4.2 2008-2009 사업계획 및 예산(34C/5) 논의

발언: 오진희 (대표부 서기관)

Korean government would like to express its full support to the proposal of Iran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promoting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epublic of Korea respects the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we have actively implemented various activities. In order to facilitate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lan to establish "the Intangible Heritage Center for Asia-Pacific" and has taken necessary measures to realize the plan, such as setting up the Established Initiative for the Intangible Heritage Center for Asia-Pacific.

We believe that partnership between States Parties of a shared history and cultural links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implement the 2003 convention.

● 의제 4. 2 2008-2009 사업계획 및 예산(34C/5) 논의: 34 C/DR 22

발언: 오진희 (대표부 서기관)

Mindful that cultural properties are crucial in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people's identity, we believe that UNESCO's strategic leadership on this agenda must be stresse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strengthen the role of IGC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n this regard, we support for the amended resolution.

- 의제 5. 6 문화관련 Category II 센터 설립(크로아티아 수종고고학 연구센터, 중국 아태지역 세계유산교육.연구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문화 및 국제이해연구소)

발언: 오진희 (대표부 서기관)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join the previous speakers' support for these initiatives. Particularly, we welcome the initiative of Chinese government to establish a World heritage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in China. We believe that this institute will enhance the capacity of Asia-Pacific countries not only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incumbent World Heritage sites, but also in the development and elaboration of new representative heritages for a more balanced and credible World Heritage list.

Mindful of the abundant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in this region, we hope this institute will facilitate joint comparative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s with competent organizations in other Member states regarding the conservation technologies, management policies and mutual exchanges of experiences of the various heritage sites.

- 의제 8.5 1970년 문화재불법반출 및 소유권양도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

발언: 김귀배 (한위 문화팀장)

The ROK strongly supports the draft resolution of 34 C/55 and welcomes growing number of the State Parties to the 1970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of the fact that a number of cultural properties are under threat of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or displaced in armed conflict situation, the UNESCO's role, as the unique international entity handling the issue of the retur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needs to be further strengthened, particularly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We are pleased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nnounce that the ROK will host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in commemoration of the Committee's 30th anniversary in 2008. This Extraordinary session will be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complishments and future role of the Committee. We would like to request your support and assistance in making this meeting a meaningful and successful one.

We hope that the extraordinary session in next year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reinforce the ICPRCP.

사. 커뮤니케이션분과 발언문

- 의제 4.2.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Part II.A. 주요사업 V - 정보커뮤니케이션

발언: 윤병순(한위 정보커뮤니케이션팀장)

Mr. Chairperson,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08-2009 in relation to the field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articularly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Main Lines of Action from six to four, which will lead to further concentration and prioritization of programmes.

We suggest, that the contribution of ICTs to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should have more visibility in the document. Specifically, we recommend that aspects of cultural diversity be integrated into the paragraphs relevant to universal access and IFAP in the 34C/5 vol. 1 and 2, and that the WSIS Action Line C8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linguistic diversity and local content" be mentioned in such a paragraph in vol. 2.

In this context, we believe that the word "knowledge" should be added to the end of the Biennial Sectoral Priority 1, also considering that the Strategic Objective 12 in 34C/4 is "Enhancing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nk you.

아. 행정분과 발언문

- 의제 11.2. 비정규예산의 효과적 활용계획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발언: 정우탁 (한위 기획실장)

Concerning Item 11.2 “Report by the DG on the Action Plan for Improved Management of Extra budgetary Fund”, I fully support the efforts made by the Secretariat to improve the existing management of funds. As mentioned in the Action Plan, extra budgetary contributions should be fully aligned with UNESCO’s strategic objectives and sectoral priorities of the C/4 and C/5 documents. Extra budgetary activities should also have a direct linkage to the regular programme and budget. Considering the ‘One UN policy’, it is inevitable to standardize the rate of programme support costs of the extra budgetary fund. Since the Republic of Korea will increase the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e have a keen interest in this area.. My government would like to have a consultation meeting with the UNESCO secretariat on this matter. Finally, we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UNESCO through both assessed and extra budgetary contributions.

- 의제 11.11. 직원 의 지리적 배분 및 성비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발언: 정우탁 (한위 기획실장)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UNESCO's continual endeavors to improve the geographical balance of staff within UNESCO. UNESCO's newly adopted measures, including the 'Promotion of Vacancies in Non- and Under-represented Member States,' 'Review of Recruitment Process,'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and other proactive measures have certainly contributed to an improvement i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Non- and Under-represented Member States. However, 31 percent of Member States are still identified as Under-represented countries while 16 percent are not represented at all within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Asia, the Pacific region and Latin America still remain regional groups for which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s well below the minimum quotas. In this regard, our delegation would like to request the Secretariat to further improve the level of recruitment from the Asia, the Pacific region and Latin America.

Over the past few years, the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geographical distribution by recruiting new staff members mainly from Non- and Under-represented Member States. However, most new staff members recruited through this programme are classified as either P-1 or P-2, the lowest grades of the staff hierarchy.

Concerning retirements foreseen over the next five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se upcoming vacancies will provide the Organization with an opportunity to further improve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employees a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Non- or Under-represented countries. It is our sincere hope that during these change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regional groups at Director level and above will be greatly improved.

- 의제 6.3 결의안 33C/90에 따른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에 대한 지침 및 기준 실행
발언: 정우탁 (한위 기획실장)

Concerning Item 6.3, Guidelines and Criteria on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ers, I very much appreciate the efforts of the Secretariat in preparing a comprehensive strategy on category 2 centers. This document contains 13 strategy elements on Category 2 centers such as guidelines, criteria, monitoring and reporting.. In my opinion, UNESCO category 2 centers are a result of UNESCO's natural evolution. In the globalized world, people need more global activities that reach across national borders. UNESCO category 2 centers were born in these global circumstances. In this context, UNESCO should have a more positive influence on category 2 centers. I believe category 2 centers enhance the visibility of UNESCO in terms of both individual countries and regions. For example, the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is considered as a successful category 2 center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education as well as peace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best strategy of UNESCO for category 2 centers is a division of labor between UNESCO and member states. UNESCO should provide comprehensive guidelines and criteria for the creation of category 2 centers, and should carry out monitoring and reporting activities.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the necessary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for those centers.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close cooperation between UNESCO and member states will improve the quality of management and activities of those category 2 centers and reduce any negative impacts.

VIII. 관찰 및 평가

가. 분과별 관찰·평가

1)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과위원회(PRX)

- 금차 총회 PRX 분과위원회 기간 중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북구유럽 국가들과, 영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등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비효율적인 예산활용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이의 개선을 요청함. 유네스코 참여사업과 펠로우쉽사업의 경우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됨. Anticipation 및 Foresight 사업의 경우, 많은 회원국들이 동 사업의 성과는 물론, 재원의 효율적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실효성 없는 사업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 핵심 사업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2003년 미국의 재가입 이후 계속 강조되고 있는 조직의 효율적, 효과적 그리고 투명한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년 만에 다시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에 재선출된 우리나라가 조직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사업 분야에서의 기여 외에도 조직의 운영, 재정, 행정 분야 주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의견주도국들과의 폭넓은 의견교류를 통한 정보 수집활동 및 주요의제 연구활동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코트디부아르를 위한 유네스코 사업 분야에서의 전후 특별 지원 사업 준비’(34C/48) 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아프리카 지원 사업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 중인 유네스코 사업 분야 아프리카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영국 등 일부 나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지원 사업에 있어 본부 아프리카국과 다른 주요 사업부서 간의 불필요한 사업 중복, 투명한 사업 이행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차 총회 PRX 분과위에서 가장 긴 논의를 거쳐 채택된 ‘유대인 대학살 상기관련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됨. 비록 유대인 대학살 외에도 인종, 종교, 신념의 차이를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반인륜적 범

죄들 반대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아랍 국가들의 노력이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추후 동 결의안에 근거한 사업 개발 시 이번과 유사한 형태의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정규예산의 11번째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빈국 및 개도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유네스코 펠로우쉽의 수혜대상국 명단에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바, 금차 총회에서 유네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수혜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뒤 늦게나마 수혜대상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함. 추후 우리나라의 다양한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개도국 및 최빈국 학생대상 펠로우쉽 프로그램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여정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분과위원회(SC, SHS)

-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무국이 작성제출한 예산안을 회원국이 이례적으로 합의를 통해 수정(IOC 예산 50만불 증액 합의)했다는 점. 이는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 결정과정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가 강화되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사무국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비판과 수정안 제출이 더욱 빈번해지고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이러한 IOC 예산 증액을 브라질, 멕시코 등을 위시한 중남미 개도국과 인도가 주도했던 것은 아프리카 우선정책에 따라 비정규재원사업이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타지역 개도국들이 자국혜택을 확보 또는 증대하는 방안으로 자국 또는 관련 지역사업 정규예산을 늘리는 것이 유일했던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향후 이와 같은 정규예산 배분 문제를 포함하여 유네스코 사업방향 및 조직운동을 둘러싼 회원국간 외교전이 매우 복잡다단한 합종연횡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집행이사국으로 진출한 한국이 단순 거수기 또는 방관자가 아닌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이사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에 관한 분석이나 제안에 치중하는 기존 접근방식에서 근본적으로 탈피, 유네스코 예산 및 조직운용에 관한 고급정보 취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사안에 대하여 집행이사국중에서 지역별로 최소한 2개국의 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대표부 - 외교부 - 한위 및 국내 관련 부처 또는 유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의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대표부는 현지 고급정보 취득에 집중하여 이를 외교부, 한위, 국내 유관 부처 또는 기관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외교부는 국내 유관 부처 또는 기관의 협의를 주도하

여 해당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립과 관철을 총괄조정하며, 한위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 축적하여 대표부, 외교부, 유관 부처 및 기관에 적시 공급하는 한편 해당사안에 관한 한국 입장을 건의하는 공조체제가 필요함. 한위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수행 위주에서 대표부 지원 위주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별 최소 1인씩 대표부에 순환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최근 유네스코 사업의 주요경향중 하나는 정부간사업의 강화임. 정부주도보다 지식인과 문화인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연대를 추구하던 사업방식이 마츠우라 사무총장 부임 이후 정부간사업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분야의 각종 유산사업을 필두로 과학분야의 해양, 담수, 생태, 기초과학, 생명윤리, 사회변동 관련 사업과 모든이를 위한 정보사업 등이 모두 정부간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 회원국도 정부정책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부간사업 방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부간사업은 각기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중대사안은 동 이사회에서 논의 및 결정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각 정부간사업 이사회의 논의 및 결정 사항이 집행이사회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음. 한국이 대유네스코 외교의 목표를 유네스코를 통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소프트파워) 제고 및 유네스코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증대로 설정할 경우, 집행이사회 활동의 기초가 되는 각종 정부간사업 이사회의 논의와 결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한국이 이사국인 정부간사업 이사회에서 적극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과학분야에서 한국이 이사국인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MAB(인간과 생물권), IGBC(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의 모든 의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대해서는 방관 또는 침묵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절충안 도출에 적극 기여해야 함. 뿐만 아니라 이사국이 아닌 IHP(국제수문학프로그램), IBSP(국제기초과학프로그램), IGCP(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 MOST(사회변동관리사업)의 논의도 면밀하게 추적하고 각종 정보를 축적하여 집행이사회의 관련 논의에 철저 대비해야 함.
- 상기 정부간사업 방식의 강화와 함께 주목되는 추세는 비정규예산사업의 증가임. 2006년 한해만 비정규예산사업비가 4억 9400만불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들은 정규분담금 증액보다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비정규예산 공여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음. 선진국들은 이러한 비정규예산사업을 통해 다양한 유무형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선진국의 유네스코 활용전략을 정확히 파악 및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유네스코 활용전략을 수립 실천해야 함.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교육 및 과학기술(IT포함)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유네스코 활용전략이 시급히 요청됨.

3) 문화분과위원회(CLT)

- 금번 총회에서 문화분야 한국의 현안사항인 3가지 주제, 예술교육, 무형유산센터, 불법문화재반환 내년 특별회의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히고 홍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특히, 2010년 2차 예술교육총회관련, 사무국에 동 회의 개최를 위한 구체 계획 및 175차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비정규예산 모금 강화를 촉구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집행이사회에 진출한 것을 활용하여 향후 집행이사회에서 사무국이 2차 예술교육총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결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총회에서 기존에 예술교육에 관심을 표명한 인도 및 포르투갈외에 독일, 오스트리아, 레바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이 예술교육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향후 결정안 추진시 동 국가들과의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예술교육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최국인 한국이 선도적으로 예술교육관련 사업(예술교육 통계사업 등)에 소정의 신탁기금을 기탁하고 이에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한다면 예술교육분야 한국의 주도적인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대다수의 국가들이 불법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동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ICPRCP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년도 ICPRCP 특별회의 개최에 대해 기대를 거는 것으로 관찰되는 바, 동 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금번 총회는 카테고리 II센터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기회였음. 향후, 증가추세에 있는 카테고리 II 센터의 무분별한 남발을 우려해 센터 설립기준과 평가기준이 강화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형유산센터 설립제안서 작성시, 설립 필요성, 센터가 제안한 사업의 유네스코 중기전략 및 C/5 이행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향후 우리정부가 유네스코 논의의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기총회에 대비하여 information meeting, 전문가 회의 등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을 강화하는 동시에 DR 제출, 공동관심이 있는 회원국들과의 연대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4) 커뮤니케이션분과위원회(CI)

-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에서는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중기전략(34C/4) 및 차기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34C/5)에 대해 회원국간 주목할 만한 특별한 쟁점은 없었음. 회원국들은 새로 개편된 C/4와 C/5의 구조와 방향에 대해 지지의사를 보냈으며, 다만,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사업의 특성상 학제간협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을 많이 하였음. 이에 대해 사무국에서도 학제간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유네스코는 지식과 정보의 보편적 접근과 공유 그리고 그 확산이 없이는 MDG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향후 6년동안의 중기전략을 지식사회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유네스코가 다른 어떤 국제기구보다 차별화된 전략과 업적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의 행동노선 11개 중 6개의 중재자로 유네스코가 선정되는 것 등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된 한국의 참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T 강국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IT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유독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의 장에서는 별다른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한국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단체들이 짚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이를 위해 유네스코의 정보.커뮤니케이션 사업과 관련 정부간위원회인 IPDC 및 IFAP 등의 활동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기여와 역할, 참여 방법 등을 담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5) 행정분과위원회(ADM)

- 유네스코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이사회 재정행정분과(FA)에서 발언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FA의 Group of Expert에 필히 들어가야 함.
- 유네스코 행정분과 토의는 집행이사회 재정행정분과(FA)에서 논의된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재정행정분과(FA)의 전문가 그룹(Group of Expert)에서 활동하는 국가들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와 상호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 분과 토의를 주도하고 있음. 향후 집행이사국 활동시 아국이 가능하면 재

정행정분과(FA)의 전문가그룹(Group of Expert)에 들어갈 것을 건의함. (* 일본과 인도가 오랫동안 아태지역 국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이사국 분과 배분은 총회 직후 열리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지역 그룹(ASPAC 그룹) 회의에서 미리 조정함.)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재정행정분과(FA) 및 총회 행정분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표부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최소한 5년이상 근무토록 해야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하고, 이 경우 어떤 다른 활동보다 아국의 유네스코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건의사항

- 유네스코 총회 개최 초반에 본회의, 2개 이상의 분과회의, 1~2개의 특별회의, 법률위원회, 교육장관 원탁회의 등이 개최되고, 수석대표 연설과 리셉션도 예상되는 바 총회 초반에 한위에서 3인보다 많은 4-5인 참석이 요망됨.
- 분과위 참석의 경우 최종보고서 채택시에도 말은 수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채택시까지 참가 필요함.
- 총회 말미에 개최되는 전체 합동회의(Joint meeting)에 한위에서 참석이 필요함.
- 재정 지출 내역 및 미지출 내역 등 유네스코 본부의 사업 및 예산 동향 파악이 필요함.
-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정안(DR) 준비 필요함.

다. 참관기 (유네스코 한위 협동학교팀 서현숙)

유네스코 총회 및 본부의 의사 결정과정을 관찰하고, 유네스코의 전반적 사업방향 및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본부, 국가별, 지역별 입장을 파악하고, 본부 인사 및 다양한 국가위원회 업무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제34차 유네스코 총회를 참관하였으며, 상기 목적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첫째, 이론적 학습 차원에서 알고 있던 국제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참관해 봄으로써 국제회의의 진행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참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유네스코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 진행 방식 및 협의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향후 정책 자료 분석 및 사업 수행 시 연계성과 관련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총회 주요 의제 및 국가적 주요 이슈, 지역별 관심사, 국제사회의 공통 이슈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전 회원국들의 발언과 참여 과정을 숙지할 수 있었다. 셋째, 참관 기간 동안 다른 국가위원회 직원 및 본부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특히 본부 사업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근 진행 사항 및 업무 흐름에 대한 간접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총회 준비 및 참석(한국 대표단) 과정에서 한위의 역할과 위상, 대표부의 역할 및 지원, 한위와 대표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번 총회 참관을 통해 유네스코의 제반 정책 결정과정을 모두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본인이 느낀 몇 가지 사항과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회의에서 주요 의제를 이끌고 전 회원국의 관심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개인적 역량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문성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위원회가 다른 국가위원회와 달리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국내 유네스코 활동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의제 및 주요 이슈에 대한 한위의 정책 제안 및 의견은 국내 사업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한 국가의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제안 및 주요 의제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위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한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하는 핵심 이슈를 제시하고 집중해서 이슈를 선도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향후 집행이사국으로서 하나의 존재를 넘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위가 중점적으로 노력할 사안이라고 본다.

둘째, 2년 마다 진행되는 총회에서 유네스코의 사업 및 주요 의제를 주도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국내 사업이 활발하거나 국가위원회의 규모와 절대 비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내 다른 기관과의 역할과 사업이 중복될 경우 한위는 목적의 우수성을 가지고 국내 사업을 증대하기보다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우선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서 의제를 주도하는 데 인력과 정보력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또한 앞으로 한위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정보 수집 및 국제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총회 전 과정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정확한 정보 수집일 것이다. 특히, 전후 개최되는 집행이사회 논의 안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빠른 정보 제공은 절대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한위내 집행위원회 참가자들이 소수이고 모든 분과를 섭렵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집행이사국으로서 참가자들을 증대하여 주요 의제 및 사안

에 대해서는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더욱 상세히 기록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바로 전 177차 집행이사회 내용 정리 및 보고는 시의적절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총회 의제 검토 시 2년간 모든 집행이사회 문서 및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토의함으로써 변화의 추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런 사안에 대한 대처 능력은 극대화 될 것으로 보나, 대표부에서도 인원을 총원하고 한위 참가자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빠른 정보 제공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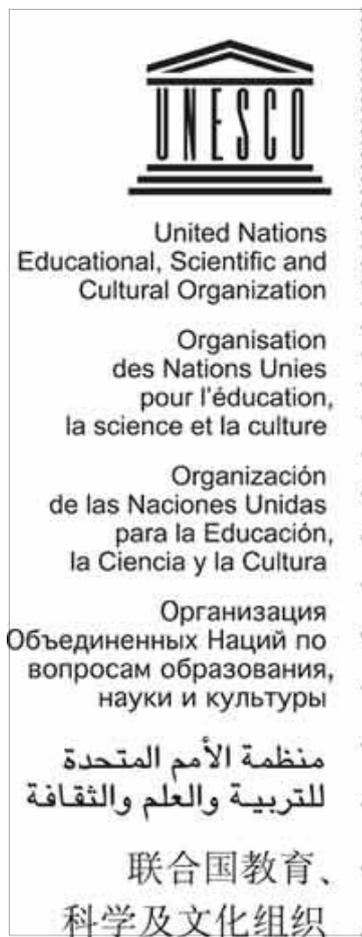
넷째, 총회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때 한위의 의견과 정책 제안은 중심적 뼈대를 구성한다. 이러한 중요성과 관계를 정착화하고 대표부와 정부 관련 부처의 한위 활동에 대한 인지와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대표부가 모든 분과 및 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가적 시급 사안을 제하고는 필요시 한위에서 참가한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발언에 대한 위임과 책임을 가지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부처 및 대표부와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 및 한위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분명한 위임 사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현재 한위 위원의 총회 참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참가를 할 경우 총회 의제 분석 회의에도 참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참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한위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단에게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섯째, 총회 참관자들은 실제 총회 내용뿐만 아니라 작은 참관에 따른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정리하여 향후 참관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조언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장에서 스스로 찾아서 참관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위 자체 내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총회 구도 및 흐름에 대한 모습을 숙지하고 간다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회의를 참관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같은 사안이 닦쳤을 경우에도 시간을 절약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관 시 분명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참관에 임한다면, 학습의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다.

일곱 번째, 한국 대표단 중 분과별로 참가하는 한위 담당자의 경우 관련 분과 토의 참석 후 분과 보고일까지 참가해서 분과별 최종 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이번 총회 참관을 통해 현장에서 주요 의제 토의 과정을 관찰하고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사업을 수행하고 정책 수립 시 중점 이슈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기에 향후 프로그램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총회 참관을 희망한다. 또한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후배들이 참관을 할 경우 경험이 많은 한위의 선배 참여자들이 의제 토의 및 의사 결정 과정의 흐름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해줌으로써 현장에서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참관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무엇보다도 참관자 스스로 기본적인 국제회의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의제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유네스코 공식 로고와 명칭

IX. 참고자료

가. 북한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손무심 유네스코 대표부 전권대사)

* 북한수석대표는 불어와 한국어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아래의 전문은 북한 대표부에서 제공한 번역문임

Mr. President,
Mr. Director-General,
Mr. Chairperson of the Executive Board,
Distinguished delegates,

At the outset, on behalf of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let me extend warm congratulations to you, Your Excellency Mr. George Anastassopoulos, on your election to the presidency of the curren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Mr. President,

The 34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is of special importance since it will summarize the success and experiences achieved in the period of the last medium-term and adopt a new Medium-Term Strategy with a view to further activate the functions and role of the Organization in keeping with the global trends of multilateralism.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ast Medium-Term Strategy, it was well proved that UNESCO performs its mission fully as an unique intellectual organization of promoting and coordinating development of education, science, culture, etc.

Such examples could be found in further strengthened leading role of UNESCO in global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successful adop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etic Data",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an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s well.

DPRK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UNESCO's activities as its member state.

The Koguryo Mural Tombs was inscrib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04, followed by the project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mural paintings, while various capacity-building projects in education, science, etc.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Mr. President,

My delegation fully supports such overarching objectives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as "attaining quality education for all", "Mobilizing science knowledg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stering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and considers that further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ensuring its effectiveness.

During the new medium-term period,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to attain most of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such as MDGs, the six EFA goals, the UN Literacy Decade and the UN Decad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substantial results gained in their implementation.

My delegation is of the opinion that UNESCO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UN reform on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its uniqueness as an intellectual organization.

And it is very important to constantly streamline and improve its working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maximum results.

We believe that UNESCO should make it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nhancing in the field of culture and encourage dissemination and transfer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Organization should strengthen its leading role in promoting global development of culture and take practical measures to facilitate inclusion of "culture" projects as an integral part of national development plans of Member States.

And as a leading agency for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should pay due attention to sharing lates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iscoveries among all the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to help achieve economic growth without damaging environment.

My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its appreciation to UNESCO for its due attention to the preservation and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and regard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take global measures for return to country of the origin cultural properties, displaced illegally in the past including the Second World War, in order to promote reconciliation among the nations and world and security.

Mr. President,

In DPRK, people are struggling hard to build a great powerful and prosperous nation with confidence and optimism under the Songun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General KIM JONG IL.

The DPRK Government directs much attention in developing education, science, culture rapidly in conformity with requirements of new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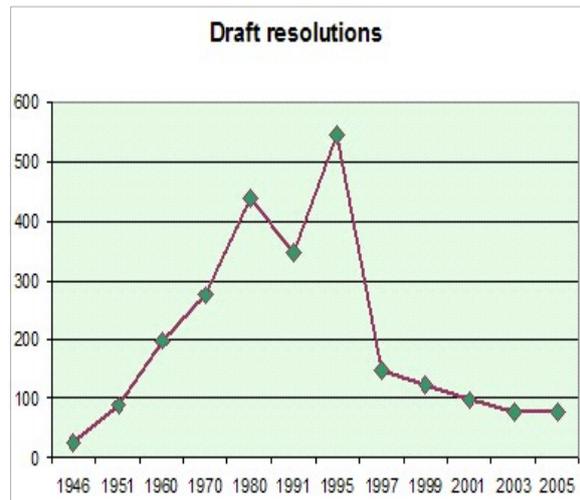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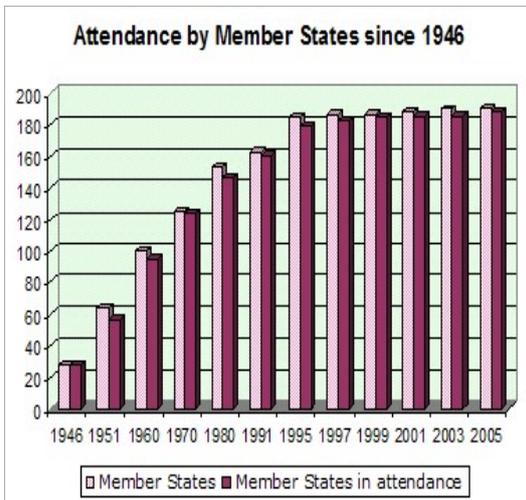
It is making consistent efforts to bring a new phase in North-South relations and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of "by our nation itself".

The DPRK Government will, in coming years, intensify cooperation with UNESCO and other Member States under its foreign policy of independence, peace and friendship and active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in implementation of the Medium-Term Strategy for 2008-2013.

Thank you.

나. 숫자로 본 제34차 총회

-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 185개: 34차 총회에 대표단을 보낸 회원국
- 10명: 국가수반 방문
- 279명: 장차관급 참석자
- 3,463명: 전체 대표단 규모
- 117명: 국제기구 옵서버 참석자
- 293명: NGO 옵서버 참석자
- 36,000쪽: 190여개국에서 접속한 총회 웹사이트 페이지뷰
- 100,000회: 177차 집행위 및 34차 총회 기간 중 비디오, 오디오 파일 접속
- 700명: 총회 특별 지원을 위한 유네스코 사무국 직원
- 156명: 총회 통역자
- 3,600명: 유네스코 16개 회의실 총 동시수용인원
- 7,000개: 총회장 출입을 위해 제작된 배지
- 851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 (141개국)
- 2,500,000개: 유네스코 아카이브가 소장한 전자문서
- 2,000개: 유네스코가 보유 중인 국기 (각국 크기별 약 5개)
- 14,000컷: 유네스코 사진사가 총회 중 찍은 총 사진



▲ 2007년 3월 몬테네그로가 유네스코에 새로 가입한 데 이어 싱가포르가 22년만에 재가입하여 유네스코는 역사상 최다인 193개 회원국을 확보했다. 제34차 총회에서 총 73건의 DR이 제출되어 32차-33차 총회 수준을 유지했다.

X. 한국대표단 사진자료



제34차 총회에서 수석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본회의 일반정책 토론에 참석중인 한국 대표단
(이상열 유네스코한위 사무총장, 김신일 교육부총리, 조일환 주 프랑스 대사)



제34차 총회 개막을 알리는 기념 공연



2008년 UN 지구의 해 기념전시, '살아있는 지구: 공간에서 장소까지'



본회의 참석 중인 한국 대표단
(좌로부터 정석구 대표부 공사, 이병현 국제교육정보화국장, 김신일 교육부총리)



니콜라스 버넷 교육부문 사무총장보와 면담 중인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